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1 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천리안) <http://www.kdf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복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79호 2001년 01/02월호

창간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 펴낸이 이윤경 · 이기원 /
물론이 이경녀, 김희정 / 펴낸날 2001년 1월 1일

2	관두언	꽃씨가 그저 씨앗일 뿐인가?	송애경
3	보육정책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제안	이윤경
8	보육정책2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관한 제안	이윤경
14	보육정책3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 발족!	편집부
21	특집	2001년 보육의 희망을 이야기 하자	편집부
32	특별강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적 질	윤선영
43	현장교육1	영아들과 함께 하는 미술활동	김미선
46	현장교육2	영아들과 함께하는 탐색 놀이	씩씩이어린이집
47	현장소식1	모이자, 한번 보자 보육교사회 송년회 하는 곳으로	김연경
48	현장소식2	한번보자가게! 한번 자알랐습니다!	이주영
50	현장소식3	전래놀이감 (동구미와 인형 만들기) 만들기 강좌를 듣고...	조선정
52	인물탐방기1	정말 씩씩한 박인해 선생님을 찾아서	이상옥
56	인물탐방기2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윤문주
58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 & A	편집부
61	한국보육정보 연구소	아이들의 마음 이해하기 놀이치료 (play therapy)	오선영
66	좋은 그림책 소개	새앙쥐와 태엽쥐	오윤정
67	영아들과의 하루	산타할아버지는 사랑할아부지!	이정미
69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아현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70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김연숙
73	세상일기	2001년을 시작하며...	박상희
75	사이버 정보당	자연생태교육관련 사이트	임미란
77	시설 탐방기	예술어린이집의 "국악제"를 다녀와서	편집부
79	목소리	우리 교육의 신화	이선주
84	알림단		편집부
85	보육계동향		편집부
86	소식과 소식		편집부
90	편집부에서		편집부

꽃씨가 그저 씨앗일 뿐인가?

송애경 · 시인, 포항여성회 부회장

아는 이가 다녀갔습니다.
채송화, 나팔꽃, 강낭콩 씨앗들
봉투마다 담아서
어여뻐 간수한 것, 책상 위에 슬쩍 두고 갔습니다.
꽃씨를 퍼들며 행복했습니다.
동그랗게 눈 뜨고 있는 까만 꽃씨가 단지
하나의 씨앗으로 보이지 않고
씨앗마다 제각기 채송화가 되고, 나팔꽃으로 피고
강낭콩으로 줄기가 올라와
어느새 온 방안이 향그로운
꽃천지가 되었지요.

꽃씨를 그저 까맣고 작은
씨앗으로만 보는 이가 있겠어요?

마음에 차오르는 詩의 가락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까만 꽃씨 같아요.
한 해나, 두 해, 아니면 수 많은 세월
채송화나 나팔꽃이 되기 위해
여물어 온 갈망들
꽃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흙을 덮고, 내일은 햇빛을 쬌고

꽃샘바람에 먼저 핀 꽃은 먼저 지는데
지금 씨앗으로 눈 뜬 당신은
가는 비로 숨을 쉬며
이제 꽃이 되려는군요.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제안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1. 아동보육환경으로서의 보육교사의 처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흔히 한다. 이것은 즉, 보육교사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동의 보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뜻한다. 부모를 대리하여 하루 12시간을 아동과 함께 보내야 하는 보육교사는 아동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율은 교사, 아동간의 애착형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율은 그 처우의 열악함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안정성의 문제는 교사의 처우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가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동의 보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 교사대 아동의 비율

대개의 보육교사가 하루 9시간이상(보육사업지침상에 명시된 보육교사 원칙적 근무시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교사 대 아동비율로는 질 높은 보육을 하기 어렵다. 24개월 미만의 경우 1:5 / 24-36개월의 경우 1:7 / 36개월이상 1:20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수준은 교육적 효과의 측면보다는 운영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시기에 있어 교사와 아동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시간동안 20명의 아이들과 생활할때 오전,오후간식 시간, 점심시간, 집단활동 시간, 각 일과전행상의 활동 전환 준비시간들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아이들과 개별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일과중 고작 2시간30분이 남는다.(표1 참조)

2시간30분을 개별아동과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아동 1명이 교사와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은 고작 7.5분에 불과하다. 오전 자유활동시간이 대집단활동준비(일명 수업준비)에 할애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4.5분으로 줄어든다. 하루종일 아동은 집단속에서 묻혀서 자신의 존재를 교사에게 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이 5분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차라리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영국의 경우 종일제 보육서비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24개월 미만 1:3 / 24~36개월 1:4 / 36개월 이상 1:8에 불과하다. (1998년 판단중지(1)-마음대로 푸는 아동·가족복지-중에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과 영국의 보육법규와의 비교" 손지미, 상조사) 선진국의 예를 무조건 차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아동들이 영국의 아동들보다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애초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된 초기의 1:15이라는 기준보다도 질적으로 퇴보한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보육에 있어서도 24개월미만의 교사대 아동비율 1:5로는 적절한 보육을 하기가 어렵다. 영아의 특성상 이동, 수유, 이유, 배변등에 있어 전적으로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또래와 집단을 형성하여 놀기보다 개별적으로 또는 어른교사과의 일대일 관계가 필요한 연령대임을 감안하여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럴 경우 영아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영아전담시설로 지원을 받는 시설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영아전담 시설의 기준을 현행 상시 보육영아 30명에서 현저하게 낮추어 상시 보육영아 20인 이상, 또는 15인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표 1)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

다음은 대표적인 일반적인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다.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 간	주요 활동	아 동	교 사
09:00 ~ 10:00	자유놀이 (교사와 아동간의 개별 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간)	등원/개별, 소집단별로 영역을 선택하여 자유놀 이 활동	등원아동 맞이하기, 시간 가정으로부터의 전달 사 항 확인, 자유놀이활동 준비, 아동관찰, 교육놀 이활동 준비.
10:00 ~ 10:30	오전간식	간식먹고 정리하기	간식 준비, 먹기활동 지 도, 교실정리
10:30 ~ 11:30	교육놀이활동 (주로 대집단으로 진행)	대집단, 소집단으로 교 사가 준비한 교육놀이활 동에 참가	대집단, 소집단등으로 교 육놀이활동 지도
11:30 ~ 12:00	활동전환시간	화장실 가기, 손씻기	활동 마무리 및 교실정 리, 식사시간준비
12:00 ~ 13:00	점심	점심식사, 양치	식사지도, 양치지도, 식 사한 자리 치우고 정리

시 간	주요 활동	아 동	교 사
13:00 ~ 15:00	낮잠, 또는 교육놀이활동 (주로 대집단으로 진행)	영아반 낮잠 유아반 이상 - 개별로 휴 식, 또는 개별 학습 및 대집단 활	영아반 - 낮잠 재우기, 차지 않는 영아 돌보기, 세탁, 관찰일기 작성, 유아반 이상 - 옛이야기 들려주기, 동화읽기, 그 림책 읽어주기등 조용 한 시간 만들기, 개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도하기, 개 별 학습지도 및 대집단 교육놀이활동 지도
15:00 ~ 15:30	활동전환시간	화장실 가기, 손씻기	교실정리, 간식준비
15:30 ~ 16:00	오후간식	간식먹고 정리하기	간식지도, 정리하기
16:00 ~ 17:30	자유놀이 (교사와 아동간의 개별 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간)	개별, 소집단별로 영역을 선택하여 자유놀이활동	아동관찰, 가정으로의 연락장 작성, 자유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기
17:30 ~ 18:00	일과정리	귀가준비	귀가지도, 교실청소
18:00 ~		귀가	일지작성, 내일활동준비

(2) 근무시간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30 ~ 09:00, 18:00 ~ 19:30)은 원장, 보육교사간 교대근무로 가능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만 해당되고 전체 보육의 81.8%(1997년말 현재)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10시간이상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많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교재교구를 만들거나 수업준비를 위해 근무시간이외의 초과근무도 많으며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경우 밤 10시~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어린이집 행사 종류 - 표2 참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먼 산의 메아리일 뿐이다. 게다가 많은 민간시설은 휴

가가 거의 없어 일년에 고작 3일에서 1주일정도의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재충전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과중한 노동시간에서 오는 피로는 결국 영유아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보장하고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직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국공립의 경력에 따른 휴가일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표2) 어린이집 월별 행사

다음의 행사 이외에도 교재교구전, 부모회, 부모참여수업등의 다양한 행사가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개최된다.

어린이집 행사			
1월	작품전시회등	2월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3월	입학식	4월	식목의 날 행사등, 부모참여수업
5월	어린이날, 어버이 날, 소풍	6월	전학등
7월	여름캠프	8월	
9월	추석(마을잔치등) 소풍	10월	운동회, 부모참여수업
11월	부모교육등	12월	산타잔치, 재물잔치

(3) 보수

한 직업의 보수수준은 그 직업의 종사자의 전문성과 수고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의 질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으로부터 시작 된다고 할때 거기에 걸맞는 보수수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표3)

(단위 : 원)

보육교사 평균임금(2000년도)		근로자 평균임금(1998년도 통계청 자료)	
국공립시설(4호봉 기준)	1,06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313,776
민간시설	60~70만원선	대졸이상(여성)	1,204,846
		초대졸(여성)	868,709
		사무직원	1,061,488
		단순노무직	737,214
		고졸(여성)	763,725

국공립시설의 보육교사 초임은 967,000원이고 민간시설은 60만원선이다. 놀이방 교사의 경우는 하루 11시간 근무에 월 5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인건비가 하루 25,000원임을 감안할때(월 25×25,000=625,000원) 놀이방등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들은 임시직 교사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베이비시터 알선 인터넷사이트에서도 베이비시터로 일할 경우 시간당 4,000원(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8×4,000=32,000원/ 월 25일 근무시 32,000×25=800,000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과근무까지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그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보육료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의 경우 보육교사의 보수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다. 전체 보육의 8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없이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4) 후생복지

보육교사가 재교육을 받거나 출산, 병가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임시교사를 채용하여 일과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정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에서 별도의 인력을 활용하려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교사의 재교육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이 대체교사 인건비를 부담스러워 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모두

- 보육교사가 ① 60일 이내의 출산휴가중이거나,
② 5일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③ 2주 이상 병가(의사 진단서 첨부:연간 60일 범위내)를 실시해야 할 경우

별도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구청에 이력서, 자격증사본, 등본, 건강진단서, 출근부 등을 첨부, 대체인력 인건비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의 임금지급 기준은 1인당 1일 25,000원으로 구청에서 전액 보조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시 보육교사 대체인력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교사 2급이상의 유자격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등에 명시되어 각 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상해보험등의 의무가입과 연 1회의 건강검진과 결과 확인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잘 보육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건강도 중요하다.

(5) 승급체계의 미약함

어느 직업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경력과 전문성을 쌓을수록 혜택을 주는 승급체계가 있다면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경우 2급에서 1급으로 다시 시설장으로 승급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시설장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로가 다양해 경력과 전문성이 연령에 가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격취득의 경로에 전문성 부분을 강화하고, 자격은 현재 인정제도에서 자격심사를 통한 엄격한 취득제도도 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교사와 시설장이라는 두가지 직위 체계만이 마련되어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 주임교사를 두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고민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임교사의 단계를 거쳐 전문적인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승급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6) 근무환경의 문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아이들과 하루종일 생활하는 보육시설의 근무환경의 문제도 점검해 봐야 한다. 교수자료와 연구자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교사공간의 확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공간이다. 또한 영아반의 경우 수유와 기저귀 갈이를 위한 별도 공간과 영아를 세면, 목욕 등을 시킬때 아이와 교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시설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운영자 간, 교사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구조와 체계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 보육문제 전반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교환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2. 제안 - 결론을 대신하여

교사대 아동비용을 낮추야 한다는 것과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은 일견 상충되는 제안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운영상의 비용을 계산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소득차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를 도입한다면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 양육의 문제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도 아동복지(보편적 보

지)차원에서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들을 법, 제도상에서 명시하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서 보육을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질 향상에 관한 제안들이 더욱 진지하고 중요하게 검토되고 시행되기를 바란다. 제안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
- 8시간 근무제를 보장하고 초과근무시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근무연수와 경력에 따른 휴가일수를 보장하고 행정지도해야 한다.
-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 보육교사의 보수·승급교육, 출산휴가, 병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
- 승급체계를 세분화하고 체계화 하여야 한다.
- 시설내 교사의 연구공간 확보등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관한 제안

2000년 보육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01 | 보육사업 주요추진계획에 따른 시행여부와 결과등을 공개하는 항목 신설.

현 영	개정건의(인)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Ⅱ. 보육시책 3. 2000 주요사업 추진계획	3. 2000 주요사업 추진계획 결과보고 및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을 보충하도록 함)	기존에는 매년 그 해의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나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각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었다. 보육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각 추진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어떤 결과에 도달하였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항목이 필요하다.
	4. 2001 주요사업 추진계획	

02 | 정부보조 지원단가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함.

현 영	개정건의(인)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Ⅱ. 보육료 지원 2. 보육단가 가. 정부보조 지원 단가 2세미만-219,000 2세-181,000 3세이상-112,000	가-1. 정부보조 지원 단가의 산출 근거(항목신설) 가-2. 정부보조 지원 단가	가-1. 지원 단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산출 근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2 현재 정부보조 지원 단가는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있다. 전체 보육아동의 72.4%(2000년도 보육사업안내 14P/가정보육시설제외)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시설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받을 경우 현재의 지원단가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보육교사의 인건비 하락과 그에 따른 보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 인건비등 기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간시설이 저소득층을 받을 경우 시설의 실보육료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거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03 | 차등 보육료 제도의 확대,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의 대상을 상향 조정.

현 영	개정건의(인)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Ⅱ. 보육료 지원 3. 보육료 수납 다. 보육료 구분 1)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2)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46.7%수준(4인가족 기준 105만원)이하 및 가구당 재산이 3,200만원(4,800만원)이하 가정의 아동	1) 기초보장수급가구 - 보육료 전액 지원 2) 기타 법정 저소득층 가구 - 보육료 전액 지원 3) 소득수준 하위 20%인 가구 - 보육료의 80% 지원 4) 소득수준 하위 30%인 가구 - 보육료의 60% 지원 5) 도시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 - 보육료의 40% 지원	저소득층의 보육요구와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04 | 보육교사근무시간 준수와 초과근무시 시간외 수당 지급 명시

현 영	개정건의(인)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Ⅱ.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유형 및 시간 2)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 19:30)은 원장, 보육교사 교대근무 가능 나) 나머지 3시간은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2)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원장, 보육교사 교대근무 또는 시간제 교사 채용등을 활용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 초과근무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수당은 대체교사 인건비에 준한다. 다)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시간제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함.	시설의 크기나 운영에 따라 교사의 출퇴근 시간에 융통성을 주되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 적정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육시설의 사정이나 행사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족이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당직근무를 위해 시간제 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05 방학제 시행시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연 영	개정건의(안)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방학제 기간동안 연가일수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방학제 다) 준수사항 •보육의 기본기능 유지 •보육아동 보호자의 사전동의 •방학 일수는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	방학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방학기간에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시 당직근무교사가 필요하며 이들에게는 방학기간만큼의 별도의 휴가일수가 보장되어야 함.

06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연 영	개정건의(안)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규정이 없음.	V. 보육시설의 운영 6. 종사자 관리 바. 종사자 복무 1) 휴가 2) 대체인력 가)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등으로 5일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보육아동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나)대체교사의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급 다)대체교사는 보육교사자격 소지자로 한다.	보육교사가 교육, 병가, 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맡고 있던 반의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체교사 채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대체교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인건비는 1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일당으로 계산한다. 대체교사 채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교사의 근무일수를 모아서 경력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정보센터 혹은 한국보육교사회 등 보육관련단체에 인력풀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07 방학제 시행시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연 영	개정건의(안)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해당 항목 없음.	Ⅵ. 보육시설의 설치 9. 보육수요조사 보고 가)시·도지사는 2년에 한번 지역내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시·도지사는 조사된 보육수요에 근거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인가를 조정.	지역별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육시설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시설 공급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08 종사자 인건비 지원원칙에서 최저기준 마련.

연 영	개정건의(안)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V. 보육시설의 운영 8. 보육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가. 시설 운영비 1) 종사자 인건비 가) 지원원칙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시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를 기준으로 그보다 하향지급할 수 없다.	가) 지원원칙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시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를 기준으로 그보다 하향지급할 수 없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최저 임금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09 특수보육시설 지정기준 완화

연 영	개정건의(안)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일제 보육기준 장애아 20명 이상 영아전담 보육시설 -상시 영아 30명 이상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일제 보육기준 장애아 10명 이상 영아전담 보육시설 -상시 영아 20명 이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특수보육시설의 경우 전담시설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특수보육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10 종사자 배치기준 세분화와 정원초과 한도 명시

연 영	개정건의(안)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종사자 배치기준 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취학아동 30:1 장애아동 5:1	종사자 배치기준 12개월미만 3:1 12~24개월 5:1 2세 7:1 3세이상 15:1 취학아동 20:1 장애아동 -중증(1~3급) 3:1 -경증(4~6급) 5:1 정원초과 한도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원의 10% 이상 초과하여 원아모집을 할 수 없다.	아동대 교사의 비율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보다 아동대 교사의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야 함.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대 교사의 비율에 따라 보육 단가를 결정. 정원초과 한도를 명시하여 과다하게 정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 발족!!

편집부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2월 27일 보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보육관계자와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시킨 보육발전위원회를 발족,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하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팀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제도개선 방안들을 심의하여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와 기획단에서 마련된 의견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보육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는데 기획단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단 이러한 회의가 회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보육종사자들, 특히 보육교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이후 기획단의 모든 진행사항과 제안되는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획단 회의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보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요활동"을 클릭하면 제일 하단부에 보육발전위원회 항목이 있음.)

아래는 보육발전 기획단 1차 회의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보육발전 기획단 구성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과 10여년 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
- 특히, 정부는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95~97)」을 수립하고, 일반예산 및 국민연금기금 재원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8,900여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인 '90년 당시 1,900여개의 시설에 48,000여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었으나, 2000년 3월말현재 20,000여개 시설에 690,000여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시설수 기준으로 10배 증가,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14배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보육시설 유형별 역할 분담 및 지역별 배치,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보육인력, 보육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양적 확충 추진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내실있는 보육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저소득층보육, 농어촌보육, 특수보육 등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공부분(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함.
-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기준의 미비, 보육시설 설치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보육시설 지도감사체계의 미비 등 질 높은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영세민간보육시설의 증가로 보육시설간 과당경쟁이 보육서비스의 경쟁보다는 보육료의 가격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보육료의 하락을 유발하고, 보육시설의 수입감소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됨.
-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 체계의 미흡과 보육교사의 신분 및 자격을 보장 관리해 주 수 있는 자격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보육교사 수급의 불균형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저하가 초래됨.
-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과정 등에 대한 질관리 체계가 미흡함.

- 21C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이러한 방향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보육사업의 총체적인 틀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paradigm)을 우선 정립하고,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각 분야별 법 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1C의 변화된 보육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아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소득수준 및 취업여부 등)에 의한 기존의 선별적인 접근방식(selective approach)을 보편적인 접근방식(universal approach)으로 전환하여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형평성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new paradigm)의 정립이 필요함.
- 또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보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 미래의 보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선진화도 요구됨.

- 따라서 향후 세부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보육사업의 패러다임을 기획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육관계자들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학계 및 현장을 대표하는 보육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기획분과를 운영함

으로써 21C 우리 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합의 및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함.

2.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그 가정의 보육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관련 각 부문별보육주체 및 전달체계, 보육프로그램, 보육인력, 보육재정, 보육환경 등 구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마련함.

-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현실 진단 및 향후의 여건 전망을 통해, 총괄적인 발전목표 및 전략을 수립함.
- 보육사업의 각 부문과 관련된 현재의 법 제도를 검토 분석하고, 총괄적인 발전목표 및 전략에 입각한 개선방향을 설정함.

○ 1991년 제정된「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정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보육법 마련 후 10여년 동안, 국민의 욕구변화 및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보육사업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보육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개정이 반드시 요구됨.

○ 보육발전 마스터 플랜의 마련에 따른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재정소요 추진 계획 수립

II. 보육발전 기획단의 중점 검토과제(안)

○ 공보육체계의 확립

- 1) 국공립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단계적 확충 방안
- 2) 무상보육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취학전 만 5세아부터)
- 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방안 등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 1) 보육교사 자격체계 재정비 및 자격증제도 도입방안
- 2) 보육교사양성(대학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 재정립 방안
- 3) 보수교육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 보육시설의 수준 제고 및 다양화

-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방안(안전시설 설치 등)
- 2) 영아 및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의 확충방안 등

○ 보육내용의 질 향상 및 다양화

- 1)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확대방안
- 2) 연령별 표준보육과정 개발 및 보급 방안
- 3)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확대방안
- 4) 특수보육프로그램(24시제, part-time제, 장애아보육, 영아보육 등) 개발 및 보급방안
- 5) 보육지도체계 확립방안(중앙보육지도위원회 및 지방보육지도위원회)

○ 보육지원체계 강화 및 재정립

- 1) 보육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및 단계적 확대 설치
- 2)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및 전달체계 평가 실시방안(평가를 개발 등)

○ 기타 선진보육제도의 도입 검토

- 1)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 2) 보육바우처(voucher)제도 도입 등

III. 보육발전 기획단의 구성 운영(안)

1. 구성(안)

○ 단장 1인과 분야별 연구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함(별첨 1참조).

- 단장은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함.
- 연구위원은 분야별 실무전문가로 선정함(별첨 2참조).
- 연구위원은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분과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단 전체회의에 상정함.

○ 구성원의 역할

- 단장(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기획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
- 연구위원
 - 전문분야별로 각 개혁과제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단 전체회의에 상정함.

- 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집필함.
-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지원반'을 구성·운영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

2.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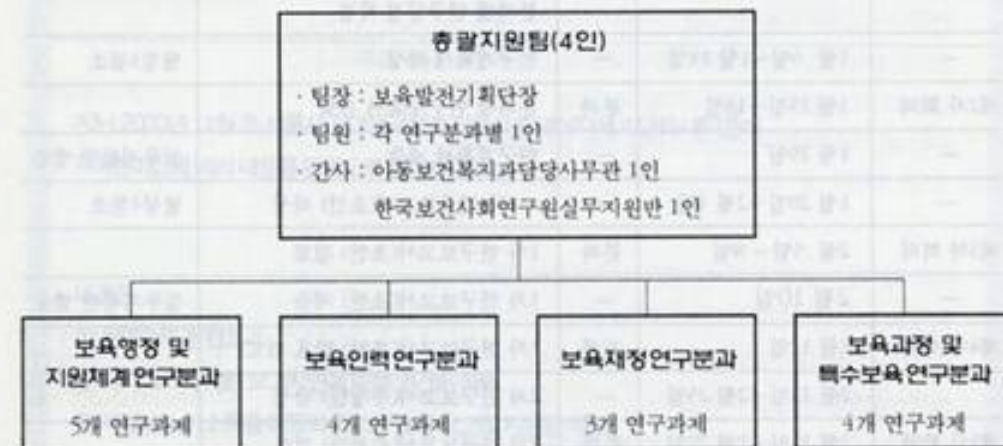
1) 총괄지원팀 구성

- 보육발전위원회 상정 연구내용 검토 및 조정
 - 팀장: 보육발전기획단장
 - 팀원: 각 연구팀별 1인(팀장)
 - 간사: 아동보건복지과담당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무지원반 1인

2) 각 연구주제별 4개 분과 구성

-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연구분과
 -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공보육의 기반 확충
 - 국공립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확충방안
 -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전달체계 평가·실시방안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보육지도체계 확립방안
 - 보육정보센터 기능활성화 방안(미정)
 -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방안(미정)
- 보육인력 연구분과
 -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방안
 - 보육교사양성(대학,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 재정립 방안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 보수교육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보육재정 연구분과
 - 보육바우처(voucher)제도 도입방안
 - 민간보육시설 재정지원 강화방안
 - 시설별 재정지원방식 재정립방안
- 보육과정 및 특수보육 연구분과
 - 보육시설 보육과정 개발 및 보급방안

- 아동대 교사 비율 개선방안(미정)
- 보육시설 및 설비 기준 개선방안(미정)
- 방과후 보육 확충 방안
- 장애아 보육 확충 방안
- 영아 보육 확충 방안



(그림 1) 보육발전기획단의 구성

3) 정기 연구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 각 연구분과별 월 2회의 정기 연구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마스터 플랜 마련

4) 각 연구분과별 공청회 개최

- 각 분과별 연구결과 종합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및 연구결과 조정

5) 연구보고서(마스터 플랜) 작성

IV. 향후 운영 일정

일	정	대 상	과업내용	비 고
제1차 회의	1월 5일	전체	기획단소개 및 운영안 검토 분과별 연구주제 확정 분과별 연구일정 확정	
—	1월 6일~1월 14일	—	연구계획서 작성	별첨3참조
제2차 회의	1월 15일~18일	분과	분과별 연구계획서 검토	
—	1월 19일	—	연구계획서 제출	실무지원반 발송
—	1월 20일~2월 4일	—	1차 연구보고서(초안) 작성	별첨4참조
제3차 회의	2월 5일~8일	분과	1차 연구보고서(초안) 검토	
—	2월 10일	—	1차 연구보고서(초안) 제출	실무지원반 발송
제4차 회의	2월 12일	전체	1차 연구보고서(초안) 발표 검토	
—	2월 13일~2월 25일	—	2차 연구보고서(수정안) 작성	
제5차 회의	2월 26일~2월 27일	분과	2차 연구보고서(수정안) 검토	
—	2월 28일	—	2차 연구보고서(수정안) 제출	실무지원반 발송
제6차 회의	3월 2일	전체	2차 연구보고서(수정안) 발표 검토	
—	3월 3일~3월 15일	—	연구보고서 수정 3차 연구보고서(최종안) 완료	
—	3월 16일	—	3차 연구보고서(최종안) 제출	실무지원반 발송
공청회 개최	3월 5주~4월 1주		각 분과 연구자별 발표	
—	4월 2주	—	보고서 수정 및 master plan 작성	

특집

이런 어린이집이 좋다. 2001년 보육의 희망을 이야기 하자.

편집부

지난 2000년 11월 초 서울시 서대문구청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익명의 네티즌이
H어린이집의 비리 내용을 민원으로 올린 바 있다.

내용은

- ① 원아수의 정원초과.
- ② 퇴직교사에 대한 보고지연에 따른 인건비 착복.
- ③ 지원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퇴소시 늦장 보고로 지원금 착복.
- ④ 급간식기준미달.
- ⑤ 가짜 영수증 발급.
- 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유치원 운영비를 어린이집에서 지출.
- ⑦ 원장의 해외연수등의 개인생활에 드는 비용을 어린이집 영수증으로 처리.
- ⑧ 원장의 비상근과 개인활동과 관련한 휴대폰 비용등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다른 영수증으로 대체.
- ⑨ 종사자 채용시 인척·인맥 등 사적관계에 의한 인사채용 등이다.

이 같은 민원에 서대문구청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본화에서는 실사가 아닌 서류 상의 조사여서 의혹은 여전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홍제2동 어린이집과 관련된 민원은 보건복지부 대화방,
시장에게 등 인터넷민원으로 접수되어 당해 구립시설의 관할 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청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완적인 자체조사를 진행 중으로
귀 단체에서 요구한 시민단체 참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보육교사회를 비롯
열린사회시민연합, 수원여성회, 서울여성노동자회,
가톨릭여성회, 건강한보육환경 실천을 위한 시설장 모임,
관악사회복지, 상동 희망나눔 등은
건강한 보육환경실천을 위한 연대모임이후 건강보육연대'를 구성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시설의 전문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제언,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보육 종사자의 어려움과
건강한 보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관계부처에 실질적인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제보전화(02-2265-4733)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2001년 1월 11일 현재 어린이집의 서울시 감사 결과
화적교사 2명에 대한 급여 미지급 및 허위증빙,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아동 급·간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시설장은 사표 수리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위법 사실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서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법규 등에 의거 조치토록 2001. 1. 4일자로 지시하였다고 한다.
건강보육연대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의 위탁제도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비합리적인 보육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후
투명한 위탁제도 마련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건강한 보육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활동 내용 등은 본회 홈페이지(www.kcta.or.kr)와
인터넷 등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보육에서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합리적인 보육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더욱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보육인들의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런 어린이집이 좋아요.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김성훈 (7세)

소풍을 많이 가요. 나가서 많이 놀아요. 인형이 많이 있어요. 딱지
가 많이 있어요. 책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 형아들이 많이 있어
요. 칠판이 커요.

김지산 (7세)

어린이집 옆에 개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옆에 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뒤에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앞에 튼튼하고 단단한 벽돌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운동장에서 보고 싶은 운동장은 야구장이에요. 나는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요.

유현빈 (8세)

맛있는 걸 많이 주세요. 의자가 많아요. 나가서 많이 놀아요. 재미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책이 많아요. 친구가 있어요.

안예찬 (9세)

전자오락기가 있는 어린이집, 스키실이 있는 어린이집, 수영장이
있는 어린이집,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린이집, 넓은 체육실이 있는
어린이집, 자동문이 있는 어린이집, 곤충 관찰을 하는 곳이 있는 어
른이집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

손수정 · 우리어린이집 우리아이들의나라 자모

나는 지금 우리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육과 운영방식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어느정도나 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교육환경이나, 프로그램들에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간인 학부모가 인간인 선생님에게 금쪽같은 내 아이를 맡기는데, 의심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고, 특별한 운영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반한 이 어린이집의 특별한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학부모의 욕심까지 덧붙여서 어린이집에 대한 몇 가지 희망사항을 적고자 한다.

첫번째가 '알림장' 제도이다.

아이들이 처음 등록을 하면 가방과 함께 출석을 체크하는 얇은 수첩과 제법 두툽한 직사각형 모양의 수첩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알림장이다. 이 알림장을 통해서 선생님은 우리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지를 적어보내 주시고, 집에서는 학부모가 우리아이에 대한 상담내용이나 부탁할 사항들을 적어 보내는 것이다. 아이를 처음 보낸 학부모들에겐 아이가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의 매일 적어주시고,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은 시기인지라, 상담거리도 많아서 알림장을 이용하면 아이가 적응해 가는 동안 학부모와 선생님들간에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된다. 아이가 어릴수록 선생님들께선 더욱 더 자상하게 아이들의 하루일과를 거의 매일 적어보내주시고, 아이가 두돌 정도가 지나면 하루하루 노는 모습이 특별할 것도 없을 텐데, 소소한 일들이라도 적어주시면 그걸 읽는 학부모는 안심이며 흐뭇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소수정예' 제도이다.

한 선생님께서 돌봐주시는 아이는 반별로 예닐곱명 정도이다. 규모가 크면 반이 많아지겠지만, 이곳은 규모가 작아 나이별로 한 반씩 밖에 없다. '알림장' 제도가

효과를 거두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한 아이를 유심히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이끌어가려면 재정적인 후원이 없이는 어렵다. 예닐곱명 아이들의 특별히 비싸지 않은 보육비로는 한 선생님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 짜여진 식단대로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을 먹으며 자기 생일에 딱 맞춰서, 운이 좋으면 자원봉사하는 삼촌 선생님과 직접 케익을 만들며 생일잔치를 한다. 조금씩 도와주시는 학부모들과 단체,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희생이 없이는 지속하기 힘든 제도이다.

세 번째가 '갇은 나들이'이다.

어린이집의 재정이 튼튼해서 아이들이 마구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실내공간과 전용 놀이터가 있고, 앞뒤로 마당과 텃밭이 있어서 수시로 자연을 느끼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자연체험학습은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더라도 방법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 바깥 나들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어린이집은 서둘버스에 기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차량운행을 하시며 인건비를 절약하고 (여사분들이라 운전도 더 조심스럽게 하신다), 날씨가 좋으면 인근 아파트 놀이터나, 학교운동장, 조금 멀게는 행정구역내 유원지까지 흠을 밟을 수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놀다 온다. 봄, 여름, 가을엔 날씨가 좋기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면 수시로 나간다. 또, 계절과 절기에 맞춰서, 견학 및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도 연간 평균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이루어진다. 여기서 학부모인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은 오전반 아이들이나 종일반 아이들이나 모두 하루종일(오전10:00 ~ 오후 4:00) 실컷 놀다 온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요구에 조금 더 놀다가 학부모와의 하원시간을 지키지 못해 선생님들께서 난감해하던 일도 있었다. 그리고, 멀리 가거나, 시기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집중될 장소에 가게될 때는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어 세 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가 '부모회'를 중심으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아빠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빠와 아이와의 유대를 강화시켜주며, 더불어 가정에서도 아빠가 아이 교육에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것이다. 또, 학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개별, 집단자녀상담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열의가 돋보이는 가운데 학부모들에게도 너무나 고마운 시간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싶다.

열린교육, 인성교육을 주로 하면서 미술, 과학 등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학습프로그램도 병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있는 '영어' 교육에 관한 방안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학부모 세대의 '영어'는 어쩔 필요하신 사람들만 배워서 써먹는 고급언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국어처럼 '영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경의선이 복원되고, 남북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세계제일의 무역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무역국에서 일하면서 살려면 아무래도 다양한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환경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영어를 잘 하는 한국인이든, 원어민이든 강사를 구해서 놀이식 영어수업을 하면 좋겠다. 학부모들도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교육에 전문적이지 못한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열풍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함께 하면 좋겠다.

2001년 판나라 어린이집 이야기

이선미 · 서울 회원

2001년 1월 2일
10시 30분
판나라 어린이집.

간 밤에 내린 눈으로 밝은 하얗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있는 조그만 놀이터는 도로변의 흙과 먼지로 자기색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사는 결심했다.
모자쓰고 장갑끼고 아이들 데리고 옆구리에 있는 대학 운동장으로 놀러가기로.
넓은 운동장에 가서 눈싸움, 눈사람... 눈과 어울려 놀기로.
그러나 hut!
이 어린이집 원장님은 새해 벽두부터 놀러가려는(?) 교사가 맘에 안 드시는지, 바쁜데 어딜 놀러가냐며 교실에 꼭 박혀 있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교사 머리에서 눈이 무너져 내린다.

2001년 1월 2일
오후 1시30분

아이들이 난방이 잘 들지 않는 추운 바닥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자고 있을 때, 교사는 꿈을 꾸다.
저 옆구리 대학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눈싸움하며 누워서 천사도 만들고, 나무도 흔들고 손을 '호호'거리며 뛰노는 꿈을.
산자락 끝에 넓은 마당을 끼고 고만고만한 아이들과 담너머 웃음소리를 내보내는 그림같은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시 속에서 정말 가까운 출더라도 나들이 가고 싶을 때 두 손에 아이들 손잡고 놀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꿈꿔본다.
정말 소박한 꿈이다. 그차?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은.....

이정인 · 부산, 코보어린이집 원장

올해로 나는 보육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째를 맞고 있다.

왜 하는지도, 왜 하어야만 하는지도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그냥 막연히 고백하자면 "돈"을 벌기 위하여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다.

처음 몇 년간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원장이라는 직함을 빙자하여 내 기본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아주 거창한 "보육"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조금씩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를 시작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보육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답은 얻기 힘든 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 일들이 어른들, 특히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편리함 때문에 피해는 보고있지는 않은 건지...

요즘엔 유아교육에도 유행이 있다.

몬테소리, 시찌다, 오르다, 프리벨, 호크마영재교육, 자연친화적 생태..... 이런 술한 이론 중에 하나라도 들지 않으면 쉽게 말하자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 특히 나처럼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받는다. 그러다보면 어느 특정 이론에 맞는 교재, 교구를 갖추고 그 이론에 맞도록 훈련시키고 많은 원칙과 별책을 정하여 아이들을 꼼꼼하게 붙잡아 버린다. 이론도 중요하고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교사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최소한의 원칙과 규칙이 있는 곳, 교사와 아이들 상호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어제 저녁에 먹었던 반찬부터 집에서 있었던 잡다한 이야기 등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었으면 좋겠다.

32평의 넓지 않은 공간에서 23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22개월된 여자아이가 새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다정이라는 여자아이가 옆에 와서는 "선생님! 우리 집에도 예쁜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다. "그럼 엄마한테 한명 더 낳아달라고 그래" "안돼요! 우리엄마는 아이를 여섯명이나 낳았는데 또 낳으면 우리엄마 배 터져요"

오늘따라 다정이나 너무나 예뻐 보인다.

엄마의 "배 터짐"을 먼저 걱정하는 다정이야 말이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마음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본 것을 자연을 통하여 만져도 보고 넓은 땅 위를 뛰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자연이 주는 계절의 변화 등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즐길 줄 아는,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엔 가꾸고 가을엔 열매를 수확하는 자연의 고마움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땅에서 무엇인가가 자란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거창한 원훈보다는 따뜻한 보살핌과 정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 한해도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신명나게 뛰어 놀아봅시다!!

행복한 아이, 서로 다른 모습의 아이들이 함께 쿵쿵어울리는 건강한 어린이집....

김성희 · 서울 YMCA 북면어린이집 원장, 숭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21세기 이른바 지식·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기반 사회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전 세계는 지금 유아교육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의 공통적 특징은 국가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미취학 때부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 의식이 형성되면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상승이란 교육수요자(학습자)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empowerment : voice, choice를 주는 것) 교육체제와 교육서비스가 재구조화되는 열린 교육을 의미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대안적 가치관과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감수성과 의지, 실천을 통해 즉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활세계를 참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살아 있는 건강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반영되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새 천년 새해에 바라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유능한 어린이집은 바로 위와 같은 교육철학과 건강한 보육환경 터전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환경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루일과와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환경, 특히 공간환경, 그 속에 놓인 사물 등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공간은 유아에게 적합한 사용자 지향적인 곳으로서 휴과 자연, 문화적인 생활 양식과의 교감이 가능하도록 언제나 열려져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와 경험이 폭 넓고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실·내외 놀이 마당, 유아 자신만의 휴식 공간, 잔디밭, 꽃밭, 채소밭, 물고기와 작은 벌레, 바람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여유 공간 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발달학적으로 적합한 보육환경(Developmentally appropriate environment)' (이연숙, 2000년) 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외환경의 부족, 혹은 소멸로 점점 실내로 닫히고 있는 우리의 보육환경에서 실내외의 유기적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실제 이러한 욕의 여건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 한정된 공간 내에서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어떻게 어린이집 공간 창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구체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은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서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지향은 우리의 아이들을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아이, 감성이 풍부한 아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데 있습니다.

20세기엔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Analogue type의 인간이 필요했지만 초고속 지식과 기술이 사회의 기반이 되는 21세기에는 이러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Digital type의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 영어, 산수 등을 가르쳐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즐거운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과 탐구력을 키우고, 야외 학습이나 견학, 공연, 음악 감상, 연극 및 역할 놀이극, 동화구연, 지각학습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서 아이들의 감성이 민감하고 풍부해 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사회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한 생활 경험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느낌 그리고 반응을 예측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말해 보게 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돕고 자기와는 다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사, 보다 높이 멀리 날고자 하는 교사가 있는 곳은 건강한 어린이집입니다. 교사들의 개성과 능력이 정확히 파악되어, 서로에 의해 성장 프로그램이 생산되고, 지속적으로 지지되는 전문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는 자체 세미나, 교사연수, 진학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내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업무를 자동화, 분장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사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유아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각종 소식지 및 홍보지 제작을 위한 편집, 행사기획, 행정업무 보조, 환경관리 및 구성 등으로 책임감을 갖고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한다면 각 영역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시설운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상하관계로 인한 경직성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 주인인 부모들을 보육의 중심에 세워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육아의 모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이집에서는 성차별, 신체적·정신적 차이로 인한 차별, 계층간 위화감을 깨트리고 내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함께 키우고자 하는 부모 교육 및 훈련, 부모참여, 부모자원봉사, 다양한 부모 후원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내에서 부모의 헌신성이 이웃과 함께 공유될 때 건강한 어린이집, 건강한 사회의 기초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새 천년 새해에는 행복한 아이, 유능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마구마구!!! 쿵쿵거리는 모든 어린이집이기를 희망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적 질

- 정책과 교육간의 긴장영역에 있는 교육의 질

강의 | Waltraut Kerber-Ganse · 베를린대 사회교육연구소 소장
번역 | 윤선영 ·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아래의 글은 지난 2000년 7월 21일 본회에서 주최한 독일교수 초청 강연회에서 진행된 강의 내용입니다.

I.

글에 들어가며 나는 우리 모두가 문화적 특성을 넘어서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교육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스스로 책임 질 의식을 갖출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요약하자면: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그래서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그룹을 조직하기도 할 것이다. 아마도 어떤 특정한 교육적 사건을 기록하여 후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 교육일기를 쓰기도 한다. 교사들은 스스로 연강교육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떠한지(여기에 대한 기준은 금방 토론을 요구한다), 또는 어떻게 교사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이 기준 또한 항상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에 대한 척도를 발달시킨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표준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행동을 위한 고유한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 스스로가 교육적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옛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취해야 할 때,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교사들의 보호하

래 어린이들을 맡겼다면, 그것은 교사들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 독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독일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교사들에게 매우 뚜렷한 규정이 주어졌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규정을 정말 수행했는가를 검증했었다. 감사가 나올 때마다 교사들은 요구된 대로 행동을 했다(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해진 노래 따라 부르기 등). 그에 반해 교사 스스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엄격한 원칙과 감시가 있는 시스템 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해야 했다. 다른 측면에서 규정은 매우 좋은 자극이 되었고 진정한 지원을 해 주었다.

이와는 달리 서 독일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잘 받았다면, 현장에서도 잘 할 것이다 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구 동독과는 달리 특별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 어머니들이 산업체나 서비스업계에서 필요해 짐에 따라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베를린장벽(1963)의 결과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갑자기 도시의 동부 쪽에서 노동력이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의 확장을 초래한 또 다른 강한 충격은 전 서구지역을 강타한 이른바 Sputnik-쇼크였다. 서구에서는 소련에 상응하는 엄청난 기술적인 보충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정을 학령기 이전의 유아교육을 위해서도 풀어들게 되었다. 그 당시 바람직한 유아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수집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즉 교육의 발전에는 정치적인 발상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이 생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좋은 교사교육만으로는 후에 직업 현장에서의 질을 위해 기껏해야 기본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직업 현장에서 생겨날 모든 문제들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며, (한 번 교육받는 시기인) 어린 연령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유아들의 삶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들을 동반하면서 도와주고 자극하고 지지해 주는 킨더가르텐 상담자들이다. 베를린의 각 구청에는 대학교 교육(석사-음진이 주)을 받은 상담자들의 팀이 있다. 지속적인 발달과 개혁을 위해 취해진 또 다른 추가 보완조치는 엄청나게 다양한 교사 재교육 제도이다. 팀으로 이루어지는 재교육은 중요시 여겨졌다. 한 유아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위해 공동으로 작성한 주제나 문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재교육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교육적인 경험을 교환하고 전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집지도 있다. 결국 유아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교육적인 실천행위를 조심스럽게 모든 직원들과

함께 의논하여 관련된 공동의 컨셉트를 작성해야 한다. 베를린 장벽과 관련하여 1989년 이후 또 한번의 많은 후속 결과를 낳은 상황이 생겼다. 구 동독의 출산율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많은 킨더가르텐이 어린이들의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 전혀 다른 유혹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가족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달시키는 일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프로필을 세워, 즉 계속 존재하기 위해 (예를 들어 환경교육과 같은) 특별한 중심교육을 결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지난 10년 간 두 번 세 전문 분야를 발달시켰다. 교사교육, 재교육, 상담, 전문서적 영역에 학회에서와 함께 교육학적-전문적 연장발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학교들은 이러한 발달선상에서 - 예외도 있지만 - 단지 지역적으로만 참여를 했다. 현장연구의 확장은 오늘날까지 아직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모든 발전의 단계와 분야에는 바로 질적인 것이 문제였고 또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우리는 교육의 질에 관하여 대단히 커다란 논쟁을 하고 있다. 질적인 향상을 위한 이 새로운 논쟁은 다시 정치적 발달과 임무와 분리될 수 없다. 그 근원은 사회사업이나 교육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건축제정으로서 공적인 경제지원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지금, 사회사업의 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게다가 그 반대로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적은 돈은 항상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고, 이것은 전 사회사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조정이라는 문제로 해석된다.

II.

정치적인 배경 이전에는 경제학적인 사고가 교육학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었다. 언어 또한 변하게 되어 산업영역으로부터 전용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곳(산업영역-울긴이 주)에는 합리화의 커다란 효과가 있고 변화된 관리에 의해 높아진 생산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점점 더 적은 경제 소비로 보다 높은 생산과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사회사업 영역에서도 이제 오래 전부터 산업체에서 해왔던 것처럼 질적 관리와 질적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일본과 같이 산업화로 치달는 압박과 속도가 높은 나라들은 그러한 질적 모델의 개발에 선도적이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이념은 간단하다. 질이라는 것은 그냥 직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조정하는 것이 더 낫다. 능력감시, 정확한 생산비율, 고객 지향, 서비스 시장의 경쟁. 이 모든 것은 질을 조정하기 위한 주요 단

어들이다. 질적 보장, 질적 발달, 질적 관리, 질적 표준 - 바로 이것이 새로운 과제이다.

교육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발달은 낯선 것으로 기이한 일로서 다가온다. 그들은 흥분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노력과 책임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저항도 생겼다. 운영자들은 현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 커다란 경솔함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다시 조용해지면서 분명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러한 발달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비 지원은 오로지 질적 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만 받는 나라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신용화 프로그램이다. 모든 기관은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질적 측면을 전 후 종합해서 평가된다. 충분한 질적 평가를 받고 보다 나은 입증된 노력을 기울이는 곳에서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

독일은 아직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관할 부처에 1999년 향후 3년 간 소위 "어린이 보육시스템 내의 범국가적-질적 향상 이니셔티브"이라는 것을 부추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연구를 통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자료가 발달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스스로(기관 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가 그 활동을 외부로부터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질의 교육학적인 표현 문제이다. 새로운 요구는 질적인 평가척도를 정하고 교육활동을 여기에 따라 평가하는 일이다. 이제 교육은 경제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화의 형태와 함께 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항상 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가? 이 시대의 전환에 근원은 무엇인가? 사고의 전환은 단지, 국가적인 입장에서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의 좋은 의지를 더 이상 믿지 않다는 데 있다. 공적인 돈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신뢰감"에 의해 투자되지 않는다. 질은 증명되어야 한다. 기관은 수행한 능력에 따라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능력은 입증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에 대한 감시 없이도 공적으로 지원을 받았었다. 이것을 우리는 "in-put"-재정이라 한다. 위임을 하고 그냥 기관 "안으로" 돈을 주었다. 관할행정에서 조정해 대한 새로운 생각은 다음과 같다. 기관에서 진정으로 해 낸 결과물을 위해서만 돈은 지불된다. 이것을 우리는 "out-put"-재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질적 논쟁의 뿌리인 것이다.

사회 사업에서 무엇이 결과관 말인가?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놓여있다. 우리는 점토 덩어

리를 손에 가지고 있어서, 끝에 가서 우리 마음대로 어린이들을 주물러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루 중 일부의 시간만 함께 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들은 졸업할 때 다 다르다. 원래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랬다. 결과물이란 없다. 우리가 만일 어린이다운 표현형태와 고유한 행위에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며, 어린이의 창의적인 힘을 고무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를 보호하면서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발달을 멋대로 다루지 않으며, 우리는 규정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개수로 내 놓지 못하면서도 "out-put"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과(Ergebnis)에 대한 기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적 질"이 증거로 내세워야 한다(연구에서는 이것이 "총체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에 의해 산출된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결국 어떤 것이 좋은 결과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 어린이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그 어린이가 집중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어린이가 한 과제에 "집중"하여 집착해 있다는 것을 놓고, 우리는 그 어린이가 깨어있고, 주의집중을 하며 호기심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한 어린이가 "착하고 튀지 않아서" 그 어린이가 오늘날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갈등해소능력과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의 삶을 위해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잊고 있는가?

결과는 단지 목표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목표란 항상 문화적, 역사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타협이 가능하고, 정당성이 주어지려면 근거도 잘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인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모든 재교육, 상담, 각 유아교육기관의 컨셉트에서는 그냥 목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쉬운 것이다. "좋은 목표들"을 세우기 위해 교육은 항상 고전을 해왔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여기에도 역시 경제학을 지향하고 있다. "결과적 질"에 대하여만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 모든 교육적 질은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건과 과정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이라 부른다. 구조적 질에는 시설 설비, 인력, 근무시간 동안의 재교육을 보장하는 권리인 직무여건이 있다. 이 근무여건을 위해서도 항상 투쟁해 왔다. 그것은 벌써 긴축재정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직무여건의 최소한의 수준을 법적으로 확고히 해 놓았다.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교육기관의 질을 위해 파업을 종종 했었다. 부모들도 킨더가르텐의 좋은 여건을 위해 교사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구조적 질 향

상을 위해.

과정적 질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교사의 실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오랫동안 공동의 컨셉트에 대하여 작업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동의 원칙을 기본으로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일을 컨셉트로 견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늘날 더 이상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새로운 조정에는 그러한 컨셉트가 단지 질적 조정에 있는 다른 것에 속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의도의 표현은 질의 전제일 뿐이다. 이러한 좋은 의도가 어떻게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통제(Kontroll)가 주안점이다. 공적인 돈은 더 이상 "눈먼" in-put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의 통제에 확연히 예민해져 있는 전쟁 이후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독일에서 살고 있다. 민족사회주의가 전 교육학을 몰수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공적 세금원 조달에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 대표들은 이 새로운 (조정에 대한) 옮긴이 주) 생각을 환영하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혁의 커다란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이디어의 이행은 어린이 교육기관의 일상적인 현실 뒤에서 "절룩거리고" 있다(별로 현장을 위해 신통치 않다 - 옮긴이 주). 통제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많은 적든 간에 열려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대체 통제가 교사들에게 질적 향상의 동기를 더욱 유발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육 옮긴이 주) 현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인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교육의 질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딜레마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III.

나는 다시 요약해 보겠다. 우리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에 동일하고 뚜렷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킨더가르텐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많은 것은 미리 예측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교사 옮긴이 주)가 계획에 미리 예견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고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사는 끊임없이 상황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좋은 생각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린이들도 항상 공동의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도 또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들도 상황

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동의 행위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은 교사와 어린이들 둘 다의 참여와 그들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그 둘 간에는 협동밖에 할 수 없다. 나(교사)는 아마도 교육적 과정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교육적 결과물을 계획할 수는 없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교사)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예견하기 힘든 행위에 대한 스트레스에 놓여있게 된다. 그래서 대개 나(교사)는 나(교사)의 행위를 행위 이후마다 차례로 반성해 보고 검증해 볼 수 있다. 그 결과에는 나(교사)처럼 항상 어린이들도 들어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나는 교사의 행위를 결과에 한정되어만 검증할 수밖에 없다. 학문적으로 성찰(Reflektieren)할 수 있는 교사라도 어린이들의 행동을 결과로 뚜렷하게 회상하지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행동을 계기로 삼아 그 때 자신의 역할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새로운 질적 논쟁이 가해지고 있다.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 때문이다. 이 척도에 의해 교육활동이 - 교사와 외부의 관찰자를 위해 - 검증되어야 한다. 아마도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나는 친절했는가, 어린이를 존중했는가, 어린이는 나의 행동에서 자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는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나는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들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었는가, 나는 나의 행동을 그 후 충분히 반영해 보았는가, 나는 어린이의 배경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어린이가 그 때 처한 문제를 배려하였는가, 나는 그 어린이에게 부당하게 요구하였는가, 아니면 너무 덜 고무하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본래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독일의 문화적 사고방식의 배경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모든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그러한 표준에 의해 그리고 기타 다양한 입장에서 성찰할 수 있거나, 동료교사들과의 팀에서 함께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고, 동료 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해 왔다. 많은 교사들의 경우 그러하지만 또 다른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자기성찰(Selbstreflexion)을 오히려 꺼리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실제적인 교수법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레파토리를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오늘의 유아교육기관 실재를 위한 표준들에 대한 이론적·전문적인 논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표준들은 결국 교사들의 자기성찰을 고무하고 지향하도록 세워져야 한다. 질문은 킨더가르텐에서는 '무

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 '어떻게'의 질문에는 질적인 질문의 깊은 차원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컨셉트, 프로그램, 프로필 등도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질적인 지표이다. 예를 들어 한 컨셉트에 "우리 교육기관에서 의미 있는 과제는 어린이들의 언어교육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질적 논쟁의 교육적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성 지향은 구체화될 수 있다. 이것은 자기성찰을 인도하기도 한다. 더 많은 투명성도 생길 수 있다. 부모도 어떤 것이 좋은 킨더가르텐인지 알고 싶어하고 있으며, 만일 더 좋은 곳을 찾으면 만질을 마지않을지도 모른다. 바로 부모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성은 필요하다. 구체적인 교육을 열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교사교육을 믿고 있지 않는다. 우리는 유아교육기관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성찰 보증을 원한다. (한 교육기관 내 - 옮긴이 주) 공동의 일상적인 고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재교육도 이제는 별로 유용성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고민은 어떤 종류의 질적인 발달이든 기본이 된다. 외부로부터의 통제는 확정된 척도에 의한 질의 보장을 돕는다. 그러나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주제에 따라 작업된 고민은 끊임없는 내적 질의 발전을 돕는다. 이러한 고무적인 역할은 지금까지 상담과제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 교사들은 고민(심사숙고하는 일)을 효과 있게 자신의 일로 수용하는데 용기를 가지며, 이를 위한 능력을 강하게 길러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외부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대답도 할 수 있게 되며 투명성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교육 목표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행위 척도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작 외부의 통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아주 커다란 비용을 들여가며 우선 통제의 네트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는 생각들이 서로 엇갈린다. 왜냐하면 통제에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통제를 위한 안내이거나 외부통제를 위한 소모적이 방법이다.

우선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미루어 놓고 보자. 아직은 교사의 행위를 어떻게 기관 내적으로 자기성찰을 하게 하고 또는 외적통제의 시각에 놓을 수 있는지 언급되니 않았으니까, 도대체 존중, 관계, 창의성, 직관, 성찰과 같은 양질의 (교육)행위 차원을 소위 관찰척도라는 것으로 변형하여 표현할 수 있겠으며, 그것을 또 표준화할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 학문의 과제가 놓여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새로운 조정이라는 정치적 의도에 나름대로 질적인 기여를 할 학문의 특별한 권한일 것이다. 학문은 이제 "범국가적·질적 향상

이니셔티브"의 범주에서 전문 상담인들과 교사들과 협동하여 교사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구체화하여, 적절히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행동표준들은 학문적인 근거와 실험적인 연구결과로서 입증되어야 하며, 방법적인 행위와 접목되어, (행위)의도에 대하여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즉,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표준들은 곧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의 행동과 가장 바람직한 전문적인 실천 행동간에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표준들은 세분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질의 행동과 비 양질의 행동이 구분되는 등급 (Skala)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초기적용의 목표

표준값 1	없음
표준값 3	교사는 (새로 들어온 옮긴이 주) 어린이를 보육시설의 일과에 적응하도록 한다.
표준값 5	적용 담당-교사는 어린이와 교사간에 애착수용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린이에게 익숙해진다.
표준값 7	적용담당-교사는 어린이와 교사간에 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린이에게 익숙해진다.

자기평가는 외부로부터의 타의평가든 행동 평가에는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 즉 도달한 수준을 위한 지표도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어린이와 교사간의 애착 수용을 무엇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한 애착관계를 어디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옮긴이 첨가).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 발달을 촉진하는 관계 형성에 대한 예를, 가장 바람직한 전문적인 실천 표준, 주요질문, 그리고 교육적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지표를 가지고 들어 보겠다.

예

프로그램과 과정의 질 발달을 촉진하는 관계 형성

1. 가장 바람직한 전문적 실천의 표준제안

교육적인 과정은 어린이들의 자립심, 공동생활 능력, 그리고 연대성을 촉진한다. 이 과정은 어린이들이 서로간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이를 계속 발달시킨다. 그 가운데 교사는 기존의 개별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유의하고, 그것의 전체적 통합을 도모한다.

2. 주요질문

교육적인 과정은 어린이들의 자립심을 기르는 노력에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실제로 촉진하였는가?

3. 지표

어린이들은 놀이와 자료에 어른의 도움 없이 다가갈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예를 들어 상처치기, 옷 입기, 화분에 물 주기 등)을 가능한 한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고무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의 시간 구성은 어린이들의 욕구와 속도를 지향한다.

교사의 제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욕구와 관심을 근본적으로 배려한다.

어린이들은 전 기관 내 놀이공간과 움직임의 자유를 가진다.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물러나 조용히 선택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독일의 이런 새로운 발달의 방향은 아직 열려 있다고 느껴진다. 통제의 네트가 생기거나 교사들의 고유한 동기를 유발하는 관심으로부터 기질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의 질적 표준이라는 것의 특성이 유지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식화된 표준은 단지 현장의 특별한 측면만을 전문적으로 입증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달된 교육목표를 측정하는 형태로 Output(결과)을 나타내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달된 교육목표의 진단학적 측정에서 유아는 다시 교육의 대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교육이란 대상 어린이에게 미친 교사의 영향으로 조사된다.

또한 연겐가 유아교육기관 간의 경쟁 압박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만 증명해야 하는, 아마도 커다란 회생을 동반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른다. 질 검사의 동기는 매우 타의적이고, 민주주의 이해에 내적으로 숙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질적 발달은 모든 참여자의 대화 안에서 자유로운 바탕 위에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지속적 개혁은 내적으로만 고무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은 새로운 전문적인 논쟁에 의해 외부로부터 올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옮김이 주) 내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사의 전문화가 진척될 수 있으며 기관은 "배우는 조직"으로서 발달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 연구된 질적 평가척도들은 방향도우미이다("조언은 항상 새롭게 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척도들은 행위지시가 아니다. (기관 내) 한 팀은 자기들에게 알맞은 회의기록이 있을 것이며, 행동 척도에 따라 토론하는 것이지, 서로 주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구속력은 서로간에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옮김이 주) 자신만의 행동표준을 외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부모들이 전혀 다른 관심선상에서 킨더가르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과중한 것을 요구하거나 타 세력을 키우려 할 때, 안전하게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것이 현관 밖에 걸어 놓은 질적으로 인증 받은 간판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동의 토론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은 결국 하나의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이것은 그 기관의 종합적인 공동의 권위로 일반 전문 내용에 충분히 내 놓을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그 기관의 능력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다. 기관의 능력프로필은 행동원리로 표현되어, 누구든지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교육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게 된다. 부모도 전문적인 논쟁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사들이 선호하는 목적에 의해 도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은 이상한 기대를 가진 어려운 부모들을 논의에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해왔다. 만일 그런 과정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당연시된다면, 정치가 위로부터 외부적으로 측정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조정을 첨가시킬 필요가 없다. 전문화된 교사는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본다면 교사들에게 자기조정의 힘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어떻게 연령에 맞는 만들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행위안 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논의를 거친 표준 형태로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개인적 발달을 위해 방향 도우미도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교사들의 토론을 통한 유아교육기관 내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지지를 받는 자기책임성에서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질적인 논쟁의 새로운 힘을 본다. 규칙적인 통제 방문과 결과측정에 의한 형식적인 신용장 수여(인정-옮김이 주)가 아니라면 말이다.

종합된 나의 결론은:

교육적인 사고는 한 가지 결과에 시야가 고정될 때 마비된다.

그러나 교육적인 행위는 설득력 있는 척도에 항상 다시 성찰되는 만큼 움직이게 된다.

현장모색 1 ○ 김미선 · 서울, 바롬어린이집

영아들과 함께 하는 미술활동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노수산 선생님과 함께 미술소모임이 진행되었다.

선생님덕이 분당이라 모두들 두어 시간이 넘게 지하철 길아 타고 버스 타고 가는 험난한 길들이었지만,

새롭게 배우는 기법과 다양한 활동들에 가는 길은 감동의 연속! 그 먼길을 오늘도 가야하나?이었지만

가면 즐겁다는 선생님들의 열의로 소모임을 무사히 마쳤다.

오늘 소개하는 활동은 미술 소모임에서 배운 활동으로서 영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안을 소개한다.

1. 우드락 판화

어렵게만 느껴지는 판화를 우드락이라는 재질을 이용하여 어린 아이들이 쉽게 판화를 해 볼 수 있게 한다.

준비물: 적당한 크기의 우드락, 심이 단단한 볼펜, 화선지, 물감, 주방용 세제

- 1) 우드락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
- 2) 밑그림대로 세게 눌러서 우드락이 그림대로 푹 패이도록 한다. 영아들은 아직 손목힘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그린 상태로만 판화를 찍으면 그림이 선명하지 않다. 영아들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사가 세게 눌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 3) 물감에 주방용 세제를 조금만 섞어 우드락에 칠한다. (세제를 물감에 섞지 않으면 우드락에 물감이 잘 묻지 않는다.)
- 4) 물감이 마르기 전에 화선지를 우드락 위에 덮고 마른 수건을 사용하여 찍어낸다.
- 5) 물감을 닦고 나면 여러색의 물감을 사용하여 다시 찍을 수가 있다.

영아들에게 물감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매력적인 것 같다. 우드락에 그림을 그린 후 물감 바르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이며 무엇보다 화선지를 우드락 위에 덮고 쓰옥쓰옥 문지른 다음에 화선지를 드는 순간 찍어 나오는 그림에 아이들을 환호성을 지른다. 여러번 찍어낼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 한지 손수건 만들기(한지에 물감 찍기)

준비물- 한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

- 1) 여러 크기의 한지를 제공하고 여러번 접기를 한다.
- 2) 조그맣게 접은 한지의 귀퉁이들을 여러가지 색깔의 물감에 조금씩 찍어서 조심스럽게 펼쳐본다. 한 장의 예쁜 손수건이 생길 것이다.

영아들이라 네모 접기가 쉽지는 않다. 정확하게 모양을 접을 수 없어 그냥 종이를 둘둘 말아도, 귀퉁이에 조금씩 물감을 찍었다가 펼쳐보면 그 나름대로 멋진 모양이 나타난다. 여러번 하다보면 종이 접기 실력도 느는 것을 볼 수 있다.

3. 색 모래 이용한 그림 그리기

준비물- 여러 가지 색모래, 목공용 오공본드(하얀색), 캔버스나 광목

색모래 만들기

- 1) 모래를 체로 걸러 곱게 만든다. 예쁘게 색깔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문 위에서 말린다.
- 2) 씻어서 말린 모래에 여러 가지 물감을 넣어 여러 색깔의 색모래를 만든다.



모래 특유의 색깔과 어우러져 아주 분위기 있는 색모래가 만들어진다. 신문 위에서 말린 후 다시 한번 체로 걸러야 고운 모래가 된다.

공동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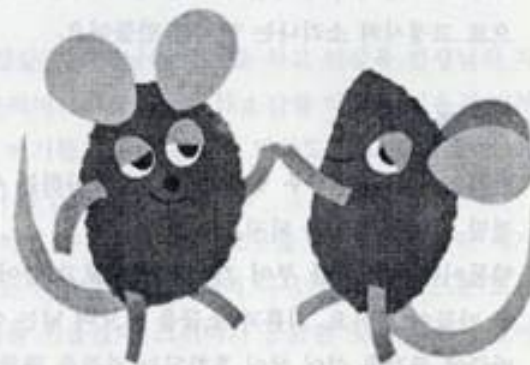
- 1) 광목천에 밑그림을 그린 후 색모래에 오공 본드를 섞는다.
- 2) 밑그림에 색모래를 칠한다. 노수산 선생님께 배울 때에는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린 후 색모래를 칠하는 것이었으나 그냥 어린이집에 있던 광목천을 이용해 봤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속을 그린 후 색모래를 바르고(작은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 바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손가락을 이용해 칠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또한 여러 가지 조개를 붙인다. 바닷물을 표현하기 위한 배경색은 수성물감이 천에 먹지 않으므로 옷 버릴 생각하고 유화물감을 이용해서 칠했다. 유화물감 나름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바람 어린이집에서는 미술 소모임에 같이 참석했던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함께 한 작품을 지난 12월 27, 28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전시회를 했었다.

27일은 새싹반 3세 아이들, 28일은 바람반 4세 아이들의 전시회였는데 오늘 소개한 작품들도 그날 전시되었던 3세반 아이들이 활동이다. '세 살짜리가 무슨 전시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난 여름부터 함께 한 아이들의 작품이 걸린 전시회는 아주 감동적이었다.

자칫 영아들이라는 이유로 미술 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격적인 자리였다.



영아들과 함께하는 탐색 놀이

영아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평소에 갖고 놀 수 없는 생활 속의 재료를 마음껏 탐색해 보면서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어요.

• 국수를 가지고 신나게 놀아 보아요

먼저, 삶은 국수를 깨끗한 비닐 위에 올려 놓고 맨손으로 국수를 만져보지요.
그 느낌이 환상적이지요. 여러 가지 조미료를 국수에 섞으면서 짭맛, 단맛, 신맛 등 맛의 변화도 느껴볼 수 있구요.
맛보기가 끝나면 노랑, 파랑, 빨강 물감을 순서대로 섞어 색이 섞이는 것도 관찰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국수와 물감을 섞어 손가락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 찍어내면 멋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 쌀도 신나는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재료인 쌀을 가지고 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지요.
양동이를 준비해 쌀을 쏟아 부으면서 쌀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어요.
손으로 만지며 촉감도 느껴보지요.
쌀을 한 컵씩 그릇에 담아보고 쏟으며 소리와 무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요구르트 병이나 종이컵에 쌀을 담아 다른 요구르트 병이나 종이컵을 마주 대고 테이프로 고정시켜 소리나는 악기를 만들어요.

• 밀가루 놀이

반죽놀이보다는 가루 만지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들 덕분에 빗정리가 만만치 않지만 정말 신나는 놀이가 되지요.
양동이에 밀가루를 부어 가루를 만져보고 불어보며 충분히 탐색한 후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 보아요. 기름과 소금을 넣으며 넣는 이유를 이야기 나눕니다.
반죽에 물감을 섞어 색이 혼합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작품을 만들지요.

1

모이자. 한번 보자 보육교사회 송년회 하는 곳으로

김인경 · 서울 남부, 토톤이어린이집

오늘은 금요일 모이자. 한번 보자. 카페. 카페로.....

터벅 터벅 길을 걸어 조금은 설레인 마음을 갖고 청산 교육장으로 향한다.

내가 토톤이에 출근하여 한국보육교사회에 발을 내 민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송년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내가 아는 분들도 오셨을까?"

기대감, 궁금함, 반반을 갖고 드디어 도착

그런데 이게 웬일 찬 바람만 썰링~~~~~. 시간이 아직 안 되었는지(아니 시간 다 되었는데) 열명도 채 안오신 것 같았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 대신 먹을 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우~ 닭다리(배가 무지하게 고했으므로) 우선 닭다리를 뜯어가며 먼저와 있는 분들과(윤경,기원,경녀언니, 이상옥 선생님 등등.)각자의 생활들에 관한 얘기를 하며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모여들더니 금세 자리를 꽉 메웠다.

사람들 보느라고 사무국장 이경녀 언니가 청산 교육장을 꽃단장 한 것을 보질 못했는데 지금보니 우와! 자그마한 예쁜 초와 비싸 보이는 한지로 책상도 덮고 정말 아기자기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여 송년회의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하여 주었다. 언니 멋져요! 감탄 감탄---

이육고 지탁연 때부터 일해오신 기라성같은 선배님들 소개를 하고 이상옥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신나는 노래와 율동도 함께 어우러져 지치고 (살이 1kg 감량 되었음)이윤경 지부장님의 솜씨도 의식도 멋있게 하시고 각자 얘기 듣고 싶은 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다보니 1차 송년회는 어느덧 막을 내려 본격적인 2차 송년회가 시작 되었다

장소는 아기자기한 한번보자 카페가 아닌 주점으로 옮겨 모두들 그 동안의 밀린 얘기들을 하시느라고 수다쟁이가 되었다. 나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경력) 뜨문 뜨문 이야기를 하고 대개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

보기도 하며...

함께 밤을 새지는 않았지만(11시쯤에 나옴)이 송년회를 함께 보내고 나니 나에게도 든든한 뼉 아니 올타리가 생긴 것 같았다. 힘이 들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 어리광을 부리고 토닥거려줄 것 만 같은 그런...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이 자리에까지 아무 탈 없이 오게 된 것 모두 선배님들이 깔고 닦아놓으신 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지키고 좀더 깔고 닦는 일은 저희들 몫임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쉬지않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깔고 닦을 것을 약속 드리며...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선 후배 사이의 벽을 2000년 송년회를 통해 좁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교육교사회 중앙에 감사드리며.. 내년의 또 다른 멋진 송년회를 기다리며...

현장서

2

한번보자카페! 한번 자-알 뵈었습니다!

이주영 · 수원 회원

요즘은 CF광고도, 제품 이름도 참 엽기적이라고 부르면서들 잘도 짓지만, 카페 이름이 '한번 보자 카페' 란다. 참 어디서 그렇게 꼭집게같이 잘도 찾아갔다 붙이는지.....암튼 멋진 카페이름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생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성화와 한 번 보고싶은 마음으로 어머니 생신을 전날 엄청엄청 축하해 드리고 아이까지 맡겨놓고 "저 오늘 늦어요."라고 아예 미리 말씀 드리고는 서울을 향했다.

교육장이 어떻게 카페로 변해있을까 기대하면서....

한지로 감싼 형광등 아래 지근이 나뭇잎이 되어 드리워져있고 파스텔톤의 촛불까지 ... 그동안 미술소모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같이 해보지 못한다고 아쉬워 하던 사무국장님이 오늘 드디어 실력발휘를 해야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로 그곳은 나를 맞아 주었다.

우리의 영원한 계주로 계속 알뜰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남미영 전회장님, 현란한 색색의 웨타를 입고 오셔서 여전히 감각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는 정희연 전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여전히 재미있는 입담으로 나타나신 임남희 전부회장님, 그리고 조인숙 연구소장님과 영원한 왕언니인 최선화 선생님,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오늘의 청일점 김덕환 선생님까지 여러 선생님들의 얼굴을 뵈는 것만으로도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다.

모두 다 아는 사이지만 웃음소리 속에서 서로 일어나 인사하고, 서은희 부회장의 사회로 이기원 공동대표님의 인사와 이윤경대표님의 한해 활동 이야기도 듣고 모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전통놀이도 하고 (오늘도 결국 관리아저씨의 조용히 해달라는 말씀을 들어가며 강강술래를 돌았다.) 오른쪽 다리만 걸고 돌아서 왼쪽다리도 마지 해야 풀리겠다는 아쉬움을 나누며 우리의 한 번보자 카페는 1차가 마무리 되었다.

아...사람간의 이야기는 2차부터라고 누가 이야기했던가?

집에 가라는 사람도 없고, 또 가겠다는 사람하나 없이 저녁식사와 더불어 찌제와 알콜이 오가고 다는 못들었지만 어쨌든 간만에 부푼 기분을 모두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만 날이었다!

지금은 현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모두 하나였다. 이것을 눈치챈 사무국에서는 후원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어 한 장씩 안겼지만 또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접수도 안한다. 그러나 이실전심이라고 애초부터 접수되어 있는 회원들의 애정이라 피차 걱정 안해도 될 듯 싶다.

서로 간지럽게 뵈.....하면서 시작한 촛불의식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또 나오는 말! 일년에 한번말고 분기별로 해주세요~

그 새벽에 집에 가는 길에 뿌리는 돈이 아까우라 난 오늘날만큼 부자다. 아니 우린 모두 갑부다.

돈보다 중한, 꽃보다 아름다운, 가슴에 삶의 애정을 간직한 사람들이니까!

한번보자 카페!

한번 자-알 뵈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아이들과 새해 소원 이루시고 두 번 보자 카페에서 만나요.

2001년에도 행복하시구요

전래 놀잇감 (동구미와 인형 만들기) 만들기 강좌를 듣고....

조선정 · 서울 서부, 어깨동무 어린이집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생소한 내용의 교육이라 솔직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보육교사회를 믿고 두 분 선생님과 같이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처음부터 듣지 못한 탓에 마음과 손만 바쁠 뿐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배워 저희 어린이집 부모교육 시간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부모 교육 며칠 전부터 저희는 보육시간이 끝나자마자 모여 앉아 손에 쥐가 나도록 동구미 샘플을(시작부터 완성까지) 만드느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래도 어쉴뿐 숨쉴 시간만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마다 서로 자화자찬을 해가며 자신의 것이 제일 예쁘다며 자랑하며 힘든 마음을 달랬습니다.

부모교육 당일날, 좀 더 많은 준비와 샘플이 준비가 되지 않아 걱정도 되었지만 실전에 강한 게 보육교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아는대로 가르쳐 드릴 각오로 6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 분씩 어머니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오시는 순으로 준비된 재료를 드리고 1:1로 앉아 시작을 했고, 어느새 교실 안은 동구미 만들기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들의 손놀림도 익숙해져 가고 동네 마실 나온 아줌마처럼 분위기도 화기애애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옛날 가마니 짜던 기억을 되살리며 온근히 베테랑임을 자랑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부모교육과는 달리 마음도 가벼웠고 얼굴을 잘 몰랐던 영아반의 어머니들과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는 질문에 조금 긴장을 했던 교사들도 아이들을 대하듯 편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안스러운 듯 준비한 떡도 교사의 입에 넣어주며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구미 만들기 중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자 바구니의 모형들이 나타났고 손에 쥐가 나서 힘들어 하던 어머니들도 조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 손놀림이 더욱 빨라지는 듯 했습니다. 2시

간 30분 가량이 지난 뒤엔 어머니들의 손에는 자신의 개성만큼 강한 제각각의 모양을 가진 바구니들이 들려 있었고 서로서로 열사람의 것을 비교하며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만든 어머니들이 바구니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무언가 한 가지를 해냈다"라는 뿌듯함으로 소중하게 안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몸과 마음이 고단했던 교사들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호뭇했던 잊지 못할 부모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동구미가 집안 한 곳을 꾸미는 소품으로 자리잡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정말 씩씩한 박인해 생님을 찾아서

하나, 변명...

늦은 가을저녁에 나는 아들과 함께 이화여대 운동장에서 윤도현 밴드에 취해 소리 소리 지르며 흥분하고 있었다. 그렇게 가을밤의 음악에 취해있던 나에게 만나자는 제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오-케이 싸인이 떨어질 수 밖에... 만남이 인터뷰란 사실에 놀랐다. 늦가을날 나는 그렇게 당했다.

아~니! 내~가! 무슨인터뷰를! 그치만 분위기에 약한 나는 전통찻집에서 마치 홀린듯이 그녀가 준비해온 질문에 아주 착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날 이후 가을은 나에게 사색의 계절이 아니라 사고치는 계절임을 입증해 주었다.

보육교사회에서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살았다. 어쩌보면 늦게 얻은 행복이라고 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어쨌든 이 사람들과는 생각이 통할 것 같았다. 사심이 없고,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들을 위해 열심히 사니 말이다. 회의 등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에 대해 참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

내내 고민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터뷰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많이 부족하기때문에 부끄럽기조차 했다.

두울, 시작전에~ (박인해 선생님을 찾아서...)

회의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나는 늘 감탄했다. 나의 삶은 이기적인 것으로 얼룩이져 있는데, 그녀는 보육에 관련한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신선함조차 느꼈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게 되는지,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 적지 않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솔로이면서 초지일관 자기 일을 하게되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대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그냥 시간만 보내

며 사는 사람들.

(전혀 아이들을 위해서나 집단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

두번째, 정말 천사같은 마음으로 그야 말로 아이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세번째, 아이들을 돌보되 험지 든든한 울타리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내가 그녀에게서 받은 인상이 바로 세번째였다.

보육교사라기보다는 조직의 boss(?) 같다고나 할까?

잘 웃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숨어있는 인간미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전화하면 응해 주겠지? 천만에!! 만만에 말씀!!

다짜고짜 전화를 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있어요?

— 없는데요! (박인해 선생님은 이미 만나자는 의의를 알고 있었음)

오~마이 갓! 절망이다. 절망. 다음 순간 아무말도 생각이 안나는데, 무조건 매달리는 수밖에... 그 다음부터는 체면이고 뭐고 앞뒤 두서도 없이 오로지 만나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써가며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

새엣, 시 작(그 곳에 그녀가 있었네~)

2000년 12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렇게 힘겨운 만남을 했다.

만나서도 힘이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 간 질문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박인해 선생님은 연말이어서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잠이 든 낮잠시간 1시간동안의 짧은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박인해 선생님을 이해 할 수 있었을까? 짧지만 긴 - 만남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날 내가 알게 된 박인해선생님을 알리고자 한다.



1) 어린이집 교사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나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빈민지역 활동을 하던 중에 그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게 무엇인지. 그래서, 서초동 꽃동네 지역 주민문제해결을 위해 비닐 하우스 안에 놀이방을 계기로 1988년 6월에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1994년 12월까지 있었어요. 당시 서초동의 화훼단지에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으로 인해 주거지를 철거당한 철거민들의 집단 거주촌이었지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빈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보육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보육을 해 주고, 밤에는 부모와 좀더 친밀하기 위해서 그들과 몸으로 부딪혔지 본격적으로 보육교사생활을 하게 된 것은 1995년도 부터구요.

2) 우리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우리아이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열린마음으로 당당하게 살길 바래요. 그러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3)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회참여를 하면서 보육교사도 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와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랍니다.

4) 아이들은 어른의 책임과 보호아에 자라게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예를들어 폭력가정이나 배고픈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 사회적 모순, 불평등 등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문제라 생각되어지므로 사회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사랑, 결혼, 일, 정신적 기지)

- 사랑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거.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하겠다.
- 굳이 결혼을 안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호르는 대로 살다가 인연이 생기면 늙어서라도 하는것이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89년당시 처음으로 활동비로 3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부하게 받고 있다. 내게 있어 일이란 신념,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나의 터전이다. 그런의미에서 씩씩이에서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활동비로써 활동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해결되도 만족한다.
- 더불어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아울러 통일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

6) 10년전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앞으로 10년후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지...

10년전의 나는 나 자신, 아이들, 그리고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초동에서 빈민 엄마 아이들과 몸과 마음으로 사회적 모순에 분노하고, 슬퍼했으며, 한계와 절망을 느끼게 했지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재개발 지역의 놀이방을 합하여 바람직한 보육시설을 지향하는 교사 합의제의 씨앗이 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되었고, 씨앗이 아이와 부모, 교사가 조화롭게 최적의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후의 내 모습은, 아마도 생산만을 위한 귀농을 할듯...

농사꾼이 되어 자연속에서 나 자신도 들여다보고, 생산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7) 씩씩이가 교사 합의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보기에 부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

우선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씩씩이어린이집이 건강한 아동보육문화를 통해 건강한 아이, 건강한 부모, 건강한 교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바람직한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교사간에 같은 부분을 동의하고 시작을 하기때문이며, 우리 교사들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8) 하고싶은 말은?

보육교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돼요. 모두 다 힘이들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육교사회 활동에 각 회원들이 조금만 더 내 것(시간, 돈...)을 내 놓을 수 있었으면...좀더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나, 또는 연수 등을 통해 보았던 박인혜 선생님. 비록 아이들이 잠든 낮잠시간을 이용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야기를 통해 20대의 그녀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고, 고쳐했던 삶의 흔적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길을 선택한 서로 다른이유도 많고, 가는 길도 서로 다릅니다. 나 역시도 시작은 달랐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뒤 늦게 깨달았 듯이, 이땅의 모든 보육교사들은 서로를 본받아 발전하리라 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름만큼이나 정말 씩씩한 씩씩이 어린이집의 박인혜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한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건만 바쁜중에 응해 주어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김정자 선생님

나이에 어울리지않게 어려보이는 정자 선생님을 보면서 역시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는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운전하러 아이들 점심 준비하러 바쁜 선생님을 보며 될 수 있으면 쉬운 것들을 물어 보려 했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올 것 같지 않아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준비하고 답변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어제 갑자기 찾아온 독감으로 병원 방문을 하는 바람에 피곤해 하는 선생님을 붙잡고 인터뷰하기는 미안했지만 이후 이런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지 않아 미안함을 무릅쓰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신없이 인터뷰를 마친 후 선생님께서는 어제 한국 보육교사회 총준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꼭 인터뷰 내용에 실어 주실 것을 여러번 당부하셨습니다. 정자 선생님 독감이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 이렇게 총준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네 아이들]을 통해 전국의 회원들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호호호.

1. 선생님 올해 나이는요?

32살입니다.

2.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인 시간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시간이 된다면 해 보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은?

한달 정도의 깊은 산골에서 온둔 생활을 제일 해 보고 싶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취미 여가 생활로 조리사, 미용, 양재 ... 등의 자격증을 꼭 따고 싶습니다.

3. 주위에서 결혼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고, 상대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솔직히 주변에서 결혼얘기 별로 안 합니다. 부모님조차도....

그래서 언제쯤이라는 계획은 없고, 상대자는 나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나를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 요정도...

4. 보육활동에 몸을 담게 된 이유는요?

92년 자원활동 소모임 (경북대 독문과)을 만들고 후배들과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졸업 즈음 먼저 활동하고 있던 선배를 통해 디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5.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학원강사, 학습지 선생

이유는 대졸 여성의 대부분이 이런 일을 하더라구요.

6.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과 그 이유는?

일 시작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출발한 나의 활동과 1년의 나의 보육교사로서의 삶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활동의 목표, 당위성과 책임성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한 고민으로 거의 3개월 불면증에 시달렸었습니다.

7. 지금까지 디딤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힘들지만 아주 잘 운영 해 오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의망이 있다면?

디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운영과 활동의 원칙들을 지켜 나가면서 동시에 모든 활동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 및 개선을 통한 디딤교사의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8.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일과 사람

9. 가정과 일, 사랑과 일, 기타 땀땀 일과 그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뭔가요?

지금은 당연히 일. 이유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갈등은 하겠지만 결국 일을 선택. 이유는 아직 결혼을 안 해 봐서....

1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격상, 내가 한 일에 대해 평가와 간섭은 하지만 후회를 거의 한함.

11. 끝으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세요

2001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세요!

어린이와

건강

육아상담 Q&A

편집부

이번 호 어린이와건강은 그동안 본 회 홈페이지 육아상담란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들을 소개합니다.

Q 4세인 아이가 아직도 틈만 나면 엄지손가락을 빨아 걱정입니다. 손가락에 악도 발라 못 빨게도 해보고, 빨면 무엇이 안 좋은 지도 계속 이야기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잠을 잘 때도 손가락을 빨입니다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연락 좀 주세요.

A 아이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 이 욕구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강하거나 다른 욕구가 충족이 안될 경우 손가락을 빨기도 하지요.

한번에 무리하게 빠는 버릇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조금씩 줄여갈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부모가 무리하게 못하게 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더 빠는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빨 때 대용품으로 문어 다리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손가락 빠는 횟수를 줄이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주의 집중할 수 없을 때 즉, 무료해서 손가락을 빨기도 합니다. 바깥놀이(놀이터나 가까운 공원, 산 등)를 자주 데려가 손가락이 아닌 흙이나 나뭇잎 등으로 놀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세요.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같이 책을 보거나 장난감을 갖고 같이 노세요. 능한 아이 혼자서 심심하게 지내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낮에 충분한 놀이를 하면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빨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낮 시간에 손가락 빠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스트레스, 욕구 불만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손을 빨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욕구가 평소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아이의 손 빠는 버릇을 고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인내입니다.

선부르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이가 손을 빨 때마다 "손 빠네" 라는 말로 환기를 시켜준 다든지 하며 아이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Q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기는 현재 35개월로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현재 말은 조금 늦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고 그 외에는 밝고 건강한 애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듣고 그때그때 표현을 잘 하고 제 자식이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말도 잘 듣고 순한 아기 같아요 요즘 들어서 부쩍 말을 잘 듣지 않고 책이나 다른 교재를 같은 것을 모두 다 풀어헤치고 잘못한다고 야단치면 엄마를 때리고 도망가고 그래요.

또 이모나 삼촌이 같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귀찮게 하고 그래요.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어서 그러니 걱정이 여간아니합니다. 그때그때 혼내고 나면 아기가 기죽어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 저 혼자 훌쩍거리곤 해요. 어린이집 선생님께 여쭙보니 지금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반항하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아이와 싸

우기(?)도 하죠.

옛말에 '미운 일곱 살'이라는 말이 있죠. 그 나이쯤 되면 유난히 말도 안 듣고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요즘은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선생님의 말씀처럼 한창 자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제한을 하거나 방해할 하면 아이도 화가 나겠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접하고 주변세계가 자신에게 긍정적이면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른의 입장에서 보기에 답답하거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집안이나 사회 생활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아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느 순간 그러한 행동들에 관심을 놓고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부모님과 만날 겁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행동을 자주 단속하고 제한하면 아이는 그러한 것들에 욕구불만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분들이 아이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세요. 같이 많이 놀아 주시구요.

보통 저녁시간에 가족이 모이면 부모는 TV를 보고 한 편에서 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다가 지루하면 부모를 보채고 귀찮게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루한 시간이지요.

어른도 저녁 시간에는 쉬고 싶기도 하겠지만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는 아이 옆에

서 아이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TV를
rM고 아이와 놀아 주세요.

이 시기가 지나 아이가 좀 더 자라면 부모님이 같이 놀고 싶어도 아이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논답니다.

아이가 왜 그럴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면 사춘기 때라도-을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훨씬 여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Q 우리 아이는 27개월입니다. 그런데 말을 아
직 하지 못합니다. 병원을 가볼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아빠는 가끔 하는데
엄마도 아직 못하고 사물인지는 잘 되어있는데 응...
아니... 이런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 할까요?



A 아이가 몇 개의 단어를 구사하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기린, 강아지하고 말하는 것만이 단어가 아닙니다. '멍멍' 하면 강아지고 '우아' 하면 우유 하는 식으로 의미가 전달되는 단어를 5개이상 한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아파를 의미하는 단어 정도만
구사하고 있다면 언어와 행동 발달 수준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소아과나 소아정신과가 대학병원마다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있으니까 가까운 소아과에서 우선 상담을 하시고 발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한국교육정보연구소

아이들의 마음 이해하기-놀이치료 (play therapy)

오선영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연구원

과거 와 달리 요즘은 대중매체의 일방적인 접촉과 기타 여러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의해 정서장애를 가진 유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벼운 문제를 가진 유아에서부터 좀더 다른 임상적·심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유아들이 있다. 또한 자기 유아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 및 한발 앞선 교육열 등으로 자녀에 대한 상담이나 소아정신과적 치료를 원하는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유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놀이치료이다.

놀이치료의 대상은 모든 유아에게 해당되며, 일상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진 유아. 예를들면, 주의집중 및 충동조절이 어려운 유아, 또래집단에 적응이 어려운 유아, 엄마와 멀어지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 눈을 깜빡이는 유아, 공격성이 심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유아,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은 유아,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 기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 등 누구든지 놀이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놀이치료를 통해 유아는 심리적으로 더 성숙해지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또한 유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와 가정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아동상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놀이치료의 개념 및 진행방법, 치료자의 역할등 놀이치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유아들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놀이치료의 개념 및 역할

놀이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포함한 놀이를 통한 유아의 정신치료이다. 놀이를 통해 유아는 발달한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뿐만아니라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아는 어른과 같이 언어로써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표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아 부적응·문제행동의 지도에는 흔히 놀이치료(play therapy)가 사용된다.

유아의 부적응·문제행동을 치료해 주는 놀이의 역할로는 첫째, 놀이는 유아가 느꼈던 증오와 두려움의 감정을 발산시키는 수단이 되며, 둘째, 놀이를 통해 사고와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 보이는 등 유아의 부적응·문제행동의 지도를 위해 치료자와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매체가 된다.

따라서 놀이치료는 유아의 정신과적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놀이는 유아를 진단 평가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심리치료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일반적인 놀이치료의 진행방법

놀이치료가 진행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0-60분으로 일주일에 1-2회정도가 적당하며, 1회의 시간을 치료 개시 초기에는 짧게, 놀이방에 익숙해졌을 때에는 점점 연장하여 4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치료 종결까지의 횟수는 증상이나 치료의 목표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20회를 기본으로 하여 그 시점에서 치료목표를 검토하여 다시 그 횟수를 연장하게 된다.

3. 놀이치료의 실시단계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모와 유아를 면담하여 유아의 발달사, 가족력, 기타 유아와 관련된 주변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보다 명료화한다.

1) 준비단계

구조화된 검사나 투사검사, 발달평가, 진단적 놀이평가 등으로 유아의 현재수준을 파악한 뒤, 어떤 맥락에서 어디서부터 개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운다.

2) 치료의 초기단계

이 단계는 탐색의 단계이다. 치료자는 유아와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한다. 또한 유아의 감정을 반영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깊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놀이방에서의 한계를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통제를 한다.

초기에 치료자가 해야 할 일

- 놀이방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
- 놀이가 끝나는 시간을 알려준다(끝나기 5분전쯤, 매회 반드시 한다.)
- 화장실이나 엄마가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것 외에 놀이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한다.
- 놀이감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한한다.

3) 치료의 중간단계

치료자와 동맹관계가 이루어져 안정감을 느끼면 유아는 일시적으로 치료자와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기를 거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유아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행동이 활발해지고 치료자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놀이방을 편안한 장소로 느끼면서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억압된 부분들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는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긴 시간으로 성장과 신뢰, 혼신의 단계를 거친다. 유아는 현재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는 교정적 경험을 하고 해석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합하고 견디어내며 성장하게 된다.

제한을 두어야 할 것들

- 치료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
- 물건파손 및 위험한 행동
- 놀이방 자체의 규칙에 관한 것
- 시간제한
- 놀이방에 먹을 것 또는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동
- 허락없이 친구나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행동
- 놀이방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동

4) 치료의 종결단계

현실생활에서 적응이 촉진되고 문제행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놀이방에 대한 매력을 잃어 가는 시기이다. 치료종결 4주전쯤 반드시 종결시기를 알려준다.

4. 놀이치료에 있어 가족의 참여 여부

유아가 아직 미성숙하고 주위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놀이치료과정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의 문제가 얼마나 가족의 영향에서 온 것이며,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가족을 참여 시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유아의 문제가 유전적·기질적 요인으로 볼 때에는 유아에만 초점을 맞추어 상담한다. 또한 유아와 가족간의 상호작용에서의 문제생성 과정을 이해하되, 놀이치료 과정에서는 가족을 참여시키지 않는 입장도 있다.

부모를 상담에 참여시켜서 기대되는 성과는 유아가 가족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또 가족이 유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치료자가 분명히 알게된다. 그리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유아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있다.

유아상담에서 부모를 참여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령 '부모들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야할 때 그런 전달이 잘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모욕당했다고 느끼거나 비판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명에 급급하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쪽의 갈등이나 문제로 유아의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부모 자신이 깨달아서 스스로 도움을 청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놀이치료에서의 치료자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 가치, 태도, 경험, 가족배경 등은 치료자의 언어패턴, 스타일, 옷입는 방식에서부터 치료자의 반응양식, 이론과 기법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어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V. M. Axline(1947)는 놀이치료에 임하는 치료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치료자의 기본적인 자세

- ① 치료자는 유아와 보다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치료자는 유아의 현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한다.
- ③ 치료자는 유아가 현재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④ 치료자는 유아가 표현하는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고 인정하며 그것을 유아에게 반영시켜줌으로써 유아 자신이 자기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해준다.
- ⑤ 치료자는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치료자는 유아의 성장과 적응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유아들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선택·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⑥ 치료자는 유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지시를 하지 않는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해 나간다. 치료자는 앞에서 끌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태도를 취한다.

⑦ 놀이치료는 점진적인 과정이므로 치료자는 치료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치료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기다려야 한다.

⑧ 치료자는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현실과 연결이 필요하거나 유아에게 치료에서의 그 자신의 책임을 자각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제한을 준다.

놀이치료에서 치료자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아의 놀이를 부당하게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놀이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감정과 공상을 적절하게 표현시킴으로써 유아의 자각을 높일수 있도록 놀이를 적당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놀이 중에 치료자가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잊고 유아의 놀이 친구가 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놀이의 치료적 의미가 없는데도 계속 진행시키거나 치료자가 유아가 요구하는대로 그저 따라가는 경우에 생긴다. 따라서 치료자는 놀이의 내용이나 외현적인 표현에만 반응하기보다 그 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반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위영, 송영혜, 변찬석(1992). 놀이치료. 특수교육.

이숙재(1997).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장선철(1998). 장애유아의 발달과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동문사.

주정일(1990). 놀이치료로 좋아졌어요. 샘터사.

원광아동상담센터 <http://www.wkcc.co.kr/>

좋은 그림책 소개

새앙쥐와 태엽쥐



새앙쥐와 태엽쥐

오윤정 · 서울 북부, 한미어린이집
레오리오나 글, 그림 / 마루별 / 7,800원

이를 새앙쥐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

다음 장을 넘겨 텅 빈 상자에는 현 장난감들이 모두 버려진 것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은 또 숨을 죽입니다. “.....”

그리고 새앙주가 된 태엽쥐를 보면서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림책의 줄거리가 시원스럽고, 아이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극적인 반전이 뛰어납니다. 레오리오나의 그림이 그렇듯이 콜라주 기법은 글과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림에서 시선을 빼지 못하게 합니다. 색도 밝고 빨강, 검정, 파랑, 노랑을 대비시켜 화려하기도 합니다.

‘사랑’ ‘친구’ ‘자아’의 주제인 듯 싶은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더 소중한지 모르겠는’ 메시지도 담겨있는 듯 합니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 새앙쥐와 태엽쥐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새앙쥐는 진짜 쥐같고, 태엽쥐는 장난감 쥐 같아 보이는 그 작은 재주, 아니 탁월한 재주에 탄복합니다. 어른들도 오랫동안 보게 됩니다.

늘 사람들에게 쫓겨 사는 새앙쥐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태엽쥐 봉봉이는 친구사이입니다. 새앙쥐는 봉봉이처럼 사랑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부럽습니다. 봉봉이처럼 되려면 보름달이 뜨는 날 마술사 도마뱀의 주문과 보라색 조약돌이 필요합니다. 새앙쥐는 날마다 보라색 조약돌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허탕입니다. 집으로 돌아 온 새앙쥐는 사람에게 버려진 태엽쥐를 발견합니다. 주인 은생이에게 새 장난감이 생겼답니다. 불쌍한 봉봉이....

아!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보라색 조약돌이 있었습니다.

보름달 빛을 받으며 숨이 턱에 차게 달려가 도마뱀을 만난 새앙쥐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도마뱀을 만나 소원을 비는 새앙쥐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너무 조용해 긴장감마저 듭니다. ‘도마뱀아, 도마뱀아, 봉봉이를 진짜 새앙쥐로 만들 수 있나?’ “그거봐, 봉봉

영아들의 하루

산타할아버지는 사탕할아버지!

이정미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제 이름은 추 민 수. 나이는 한 살하고 8개월. 사람을 조금 가려 사귀는 편이고, 겁도 조금 있는 편이지만, 호기심 많고 장차 어른이 되면 크게 한 몫 해낼 대환의 씨나이가 될거랍니다. 그런데 얼마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일을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12월 22일 도담도담어린이집의 아침은 여느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 혹은 설렘이 감돌고, 공동놀이를 하는 월요일 아침도 아닌데 누나, 형아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작은 친구들과 틈을 해집고 다닙니다. 덩달아 튼튼이반 친구들도 그저 신이 날 따름입니다.

열 시가 조금 넘어갈 즈음 누나, 형아,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 그림동화도 보고, 돌아가며 노래자랑도 하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도 추니 튼튼이반 친구들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기를 삼십분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려는가 싶더니, 빨간 옷에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짜~안하며 나타났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울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나, 형아들이 모두 신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쳐대니 그럴 수는 없어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안되겠다 싶어 조금씩 뒷걸음질을 해서 선생님 곁에 딱 달라붙어 눈만 사알짝 뜨고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인사를 하고 누나랑 형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체비를 하니, 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튼튼이반 친구들! 교실로 들어오세요.”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왜 그러도 반갑던지,

“드디어 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는구나!”

‘어서 교실에 들어가서 문 고육 닫고 저 할아버지가 우릴 어떻게 하지 못하게 선생님과 있어야지.’

다른 말과 달리 튼튼이반 친구들은 어디로 숨어 버리지 않고 쏜살같이 교실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제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이 그림책도 읽어 주시고, 재밌는 손놀이도 해주시려니 기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괴상한 할아버지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으앙!"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와버렸으니 선생님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선생님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사진이나 찍어대고,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 도무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더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선생님 말씀, 엄마아빠 말씀 잘 듣고...."하면서 친구들 손에 사탕을 한 움큼씩 쥐어 주시고 예쁜 포장의 선물도 주시는게 아니겠어요!

친구들도 모두 나처럼 잔뜩 긴장하고 있었지만 손에 쥔 사탕 탓에 더 이상 울지 않고 괴상한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불리워지고 선생님 손에 이끌려 엉덩이를 뒤로 뻗 채 괴상한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긴장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울음을 뚝 멈출 수는 없어 훌쩍거리며 사탕 한 주먹을 받아마자 뒷걸음쳤습니다.

이윽고 모든 친구들 손에 사탕과 선물이 쥐어지자 "내년에 또 만나요!"라는 말을 남긴 채 할아버지는 다른 교실로 갔습니다.

그 날은 어린이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사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괴상한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삼이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내년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빨리 왔음 하는 마음에서 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선님님! 사탕 할아버지!"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 거려봅니다.

아현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01 우리 아빠는!!

달님반(만2세반) 낮잠시간.

강산이가 자리에 누워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섭다!" 하며 빼기길래,

선생님: 선생님 아빠는 더 무섭다!

민우(자랑스럽게): 우리 아빠는 게다!

민우는 '게'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나.....

02 별명

별님반(만2세반)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선생님: 인수는 별명이 뭐야? (인수는 왕내송의 여자아이)

인수: 아빠가 공주라고 불러요!

옆에 있던

선종이: 나는 왕건이예요! 으하하하

03 결혼과 사탕

초록반(7세반) 여자아이들끼리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 난 결혼 할 거다!

영균(남): 친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끼어 들며) 난 절대 결혼 안 할 꺼야!!

다슬(여): (홍분한 목소리로) 넌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04 아기

달님반(만 2세반)의 문소정과 건우는 서로 여보, 당신 하는 사이.

낮잠시간에 소정과 건우가 나란히 누워 속닥거리는 모습을 본 선생님, 공연히 질투가 나서 소정과 건우 사이에 누웠다.

둘 사이에 있던 베개를 선생님이 베자, 건우 울먹이는 소리로

"그거 우리 아가예요!! 소정아 우리 아가지?"

소정이 당찬 목소리로 "응"

선생님(아니 언제 애까지?)

나현이의 육아일기

— 사랑에 미숙한 엄마와 너무 바빠 하루가 모자란 딸 —

김연숙 · 회원

2000년 10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호랑이 협박으로 나현이를 일찍 재워놓고 한 시간 뒤척이다가 슬픈 생각으로 눈물 줄줄 흘리며 잠자는 아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뽀뽀하다가 문득 펜을 들다.

오랜만이다. 이제부터는 컴퓨터에 육아일기를 쓰지 않기로 했다. 사실 어려서는 그저 신기한 듯 매일 관찰일기에 가까운 육아일기를 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느새 나현이가 나의 일부가 되면서 내 가슴 속에 할 말을 모두 묻게 되었다. 그치만 먼훗날 아주 아주 심심할 때 내가 쓴 이 육아일기를 차근차근 읽어 볼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나의 일기를 쓰기로 했다.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했던가? 나는 아직 그 뜻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난 점점 더 나약해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갑자기 죽는 생각을 하면 나현이가 볼썽해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기라도 한 냥 그렇게 슬프다. 나현이 볼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바로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가. 하긴 예전에는 죽는다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고 미련도 없었다. 사랑하는 민호(남편)가 생기면서 슬퍼지기 시작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더더욱 강해진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너무너무 잘 놀고 착한 우리 딸을 보면 마음이 더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정신병적인 불안 때문인가.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수시로 세뇌를 하고 위안을 한다. '내가 아니라도 나현인 딸 클 수 있다. 많이 돌 도와줄 거다. 처음 조금만 힘들고 곧 편해질 거다.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나현아 너무너무 고맙다. 때론 엄마 한 번 안 찾고 열심히 노는 게 안쓰럽기도, 서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혼자도 바쁘고 재미있게 아주 열심히 노는 널 보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고맙다!

엄만 솔직히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이 없구나.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 굳이 말하자면 미숙하게나마 널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스러운 우리 딸! 천사같은 우리 딸.....

2000년 11월 1일

참 고민스럽다 나현아.

벌써 새벽 한시가 넘은 시각인데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오질 않는구나. 엄마는 나현이도 잘 키우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려니까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널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더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 공부를 시작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것도 판단이 안 서고 용기도 나질 않는다. 엄만 왜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도 우리 나현이는 잘 자랄텐데..... 엄만 자꾸만 미래가 두렵고 겁이 난다. 늙어가는 게 싫다고 해야 옳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겁이 많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도 한 평생,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엄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새로운 일에는 경계심이 많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앞으로 뭘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도 모를텐데,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엄마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오늘도 즐겁고 씩씩하게 놀다가 혼자 똥굴거리며 잠이 든 네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사를 했다. 열심히 노는 나현이 앞에서 열심히 살지 못하는 엄마가 자꾸만 나약하게 느껴진다. 엄만 새로운 직장도, 공부도, 널 데리고 나가는 것도 다 자신이 없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나현이의 육아일기

2000년 11월 2일

머리 속이 복잡해 며칠째 잠이 오지 않는다.

자꾸만 비약시키고 확대해석하고 그러지 말자. 누구나 자기 입장이 있는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들이 아니었던가. 따뜻하게,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놓는 사고를 하고 만다. 그저 살아가는 한 과정이고, 행복함을 준비하는 작은 씨앗들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딸은 어디서든 잘 클테니까.....

오늘도 우리 병구는 그저 병긔병긔, 바쁜 하루를 보냈다. 멸치봉을 부여 안고는 멸치를 달라고 매를 써서, 한 줌 주니까 오물오물 그 짙 멸치를 뎀으로 다 먹었다. 멸치에 붙은 개미까지. 혼자 두고 잠깐 옥상에 갔다 와도 혼자 잘 놀고 있다. 가끔은 내가 안 보이면 코믹하게 크고 낮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하던 것 계속한다. '바지'라고 하고 싶은데 자꾸 '바빠'가 되니까 이젠 아예 바지를 가리키며 "빠 아 니야"라고 말한다. 잠 잘 때면 온갖 노래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불구하고 자기를 재우는 나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나 보다. '자자'하면서 인형을 이불에 던지듯 놓아주고는 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며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어허-야! 무으야(어흥이 야, 물어가라)" 우리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것이 가관이다. '뭘 하는 걸까?' 하고 가만히 보다가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물을 달라고 매를 쓰길래 겁적한 그릇에 물을 조금 담아 주었더니 머리를 감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또 물 속을 들여다보고, 올려다보고 해서 '저것도 뭘 흉내내는 건가?' 하고 다가가서 그릇을 들여다보니까 글썽 물 속에 형광등이 비추어 보이고 있었다. 재미있는 우리 딸! 너무 바빠서 하루가 모자란 우리 딸!

나현아, 언제까지나 바쁘고 행복하길 바란다.

2001년을 시작하며...

박상희 · 회원

새해

를 맞는 기쁨과 보신각의 타종, 축하 쇼를 보기 위해 광화문 네거리에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한다. 텔레비전에서만 봐도 그 광경에 놀랄 만 하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어디서든 나왔는지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 서 있었다. 그 추운 날씨에 축하공연을 한다고 그네들은 이른 저녁부터 그 자리에서 준비 했을 것이다. 한해를 새로 맞는 일이 영하의 날씨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할만큼 축하할 일인가, 그 시간 서울역에서 잠을 자고 있을 노숙자들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 대답했을까.

새 천년을 연다고 떠들썩하던 2000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할 것 같았던 2000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물어본다면 그들은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2000년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세시를 걸쳐 살아갈 수 있다는 행복감은 온데 간데 사라져버렸고,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IMF때보다 노숙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가족이 해체된 경우도 더 증가했다고 한다. 실직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부도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여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가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을 것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금뱀뱀을 단 사람들이었다. 애초부터 그네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안자가 아니었다는 듯이 년 초부터 서로 할퀴고 물어뜯던 작태들을 마지막 예산안 심의에까지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요즘 갈아선 그네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고 현재 진행되어 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그 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두 사퇴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그래도 겨울은 다가오고 사람들은 겨울 맞을 준비로 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배추 값 파동으로 사진에 물린 농민들을 더 참담하게 하였다. 돼지, 소, 닭, 계란, 우유, 과일 등등 파동, 파동의 연속으로 그네들의 마음은 시곗등이가 되었을 것이다. 어디 농민들만 이겠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만나기만 하면 한숨을 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

다고 한다. 그리고 진정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2000년은 그렇게 지났다. 그 혹독한 2000을 보내면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터에서 그나마 목숨만은 지킨 사람들일 것이다.

요즘은 모두들 신문 보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 혹은 신문을 볼 것이 없다고도 한다. 어느 조사에서는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을 묻는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4%의 지지율을 보였다.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더 이상 믿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계속 이쁘게 포장되고 부풀려진 달콤한 기대감이 현실에서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혹독함을 너무 많이 겪었던 우리네들은 어쩌면 이번도 그냥 예전처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도 혹독하고 힘겨울 때, 도리어 희망을 갖는 변증법적 삶의 철학을 우리네 민족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마 사람들은 이 혹독한 겨울 바람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또 다른 설렘을 준비할 것이다. 찾아오는 봄이 지금의 추위보다 더 추울 것이라고도 하지만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민중의 역동성 속에 다시금 2001년이 쓰여질 것이다.

2000년이 힘들었다고 2001년이 힘들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반대로 2000년이 힘들었다고 2001년은 덜 힘들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차피 준비된 만큼 성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부터 덜 힘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의 새해는 밝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역사를 더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길 기원해보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또한 기원한다.

자연생태교육관련 사이트

임미란 · 회원

1월은 대부분 방학을 끼고 있어서 생활주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획으로 자연생태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해 연간교육계획안을 잡으시기 전에 둘러보시고 활동에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연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유아교육을 위한 사이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다시 아이들을 위한 내용으로 썬어 먹여 주어야만 한답니다.

공부하는 교사 파이팅!!

<http://megalam.co.kr/> 메가람

한국자연정보 연구원이 제공하는 자연생태계 종합웹진으로 자연학교, 생태나들이, 자연다큐극장, 메가람곳간등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 식물, 곤충, 새, 물고기, 동물원, 꽃산행, 탐조여행, 동강등을 다루고 있다.

<http://www.ecokid.or.kr/> 생태유아교육연구모임

부산대 보육종합센터 부속기관으로써 생태유아교육강좌를 진행하며 정통놀이, 먹거리, 의식주, 산책, 텃밭활동등의 소모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속어린이집으로 <http://www.housse-ii.com/>에서는 보육프로그램으로 텃밭가꾸기, 세시풍속, 노인-아동상호작용에 관한 내용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보기에 적합하다.

<http://www.ecoguide.or.kr/> 한국 어린이 식물 연구회

흙, 공기, 햇볕, 물과 같은 환경과 생명체가 다함께 소중하다는 생태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의 생태와 환경을 공부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마을 환경생태 지킴이' 활동을 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생태지도를 하고 있다.

<http://www.e-gen.co.kr/> 꿈나무 푸른교실

공기, 물, 토양,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실천하고 참가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http://www.wetland.or.kr/> 갯벌 자연생태정보시스템

갯벌의 특징, 분포, 개발과 보존 등의 내용을 글, 그림, 사진 등을 통해 쉽게 소개하고 있다.

<http://myhome.nesgo.com/kcavere/> 한국동굴 생태 환경 연구소

동굴을 탐사하고 동굴동물에 대하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와 분류를 연구하는 곳이다.

<http://mushroom.charm.co.kr/> 버섯의 세계

버섯의 생태와 역할, 용어 설명과 독버섯 이야기이다.

<http://kcnhm.yeungnam.ac.kr/> 한국자연사 박물관

생태사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생물채집, 표본제작법, 한국곤충명집, 생물다양성, 모식표본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http://hometown.weppy.com/~bauba/> 한국의 민물고기

한국의 민물고기 사진과 설명, 혼동하기 쉬운 어종의 구별법을 소개하고 그밖의 수중생물 이야기 등을 제공한다.

해마다 어린이집 연말 달력에는 송년잔치나 재롱잔치의 계획들이 어김없이 표시되어 있다. 한 해를 마감하며 학부모 등을 모시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자리는 한편으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 편에서는 단순히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기에 교사나 아이들에게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좀더 의미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중에 성남에 있는 예술 어린이집의 송년잔치 얘기를 듣고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예술어린이집에서 국악교육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4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7세 아이들은 4, 5세 때부터 우리 옛노래와 장구가락 등을 익혀 왔던 것이다.

예술어린이집의 “국악제”를 다녀와서

편집부

4년 전 부모회 회의에서 부모들이 특기교육 실시에 대해 제안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박경남)가 그동안 자신이 익힌 우리 가락과 소리를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지원봉사를 자청해 그 때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예술에서는 우리소리가 들려왔다. 지금도 박경남 어머니는 일 자리를 구할 때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시간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 만큼 아이들과의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이들 역시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린단다.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익혀 온 우리 가락이 생활이 되었으며 장구 실력도 꽤 늘어 지역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행사에서

공연도 하는 등의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는 경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예술에서는 부모회에서도 민요배우는 소모임을 꾸려 운영을 하기도 했단다. 이렇듯 오랫동안 아이들 몸과 마음으로 익혀 온 우리문화를 ‘국악제’라는 자리를 통해 풀어놓게 된 것이다.

12월 8일 저녁 6시 어린이집을 들어가니 벌써 현관에는 신발들이 제법 들어차 있다. 미리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공연하기를 기다리는 부모들은 서로 앞자리에 앉아 아이들의 모습을 보려고 온근한 엉덩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은 다른 어린이집의 행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이다.

사전 몸풀기로 '부모들과 민요배우기'를 시작으로 국악제는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네 반에서 알록달록 색동의 개량한복(애술의 원복이라한다)을 곱게 차려 입고 자원봉사 이모 삼촌들과 손놀이를 하며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악제 순서지에는 아이들이 자랑하고픈 것들이 빼곡이 실려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걸 다 아이들이 공연하려면 너무 숨차지 않을까 싶었지만 4년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하려니 보여줄 것이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부모들이 불러주는 율동야 가락에 맞춘 못드러진 춤을 시작으로 민요부르기(김매기),

전래놀이 - 실구대, 바람아 바람아,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재주들이 선보였다.

순서지를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 뻔뻔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보며 아이들이 힘겨워 하지 않을까, 이걸 언제 다 준비했나, 교사들 무지하게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에 웬지 시설탐방을 잘 못 왔다는 생각이 든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보면서 무엇보다 그 공연 자체를 놀이로 즐기는 살아있는 아이들의 표정과 4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의 선입견이 선입견이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일상 생활에서 해왔던 익숙한 놀이를 예쁜 옷을 입고 부모들께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더욱 신나했고 교사들 역시 이 행사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계속 해온 국악교육활동을 발표한다는 것에 보람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4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익히고, 공연하는 박경남 어머니의 뿌듯함은 애술의 누구보다도 컸으리라 생각한다.

어린이집에서 송년잔치나 제등잔치는 해도 말 많고, 안 하면 아쉬운 항상 연말이면 고민스럽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행사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담을 털어 내고 이왕 할 잔치라면

우리 아이들이 1년동안 자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로 꾸며 보았으면 한다.



우리 교육의 신화

이선주

아래의 글은 본 회 홈페이지의 열린 마당에서 퍼 온 글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애기하고, 비판하고, 개혁합니다.

그러고도 교육은 다시 문제로 제기되고, 거기에 다시 비판이 가해지고, '발전'의 이름으로 새로운 개혁이 모색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언뜻 '시지프스의 신화'를 연상케 합니다.

밀어 올리는 돌덩이가 다시 떨어질 줄 알지만,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부조리한 시지프스의 행동.....

오르지만 이내 다시 내려오게 되므로, 출발점은 산마루가 아닌 산의 정상일 수 있는 그 신화처럼, 우리의 교육이 모색하는 개혁 또한 다른 문제점들의 시발인 듯 보여짐은 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내팽개칠 수 없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

올해는 국회에 상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만, 교육부의 '유아교육법제정'은 어쨌든 다시 대두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모두 다시 참여해야 할 우리의 교육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법과 관련, 우리사회에 찬반론이 대두되고, 그들의 어조가 과격해지면서, 약간은 퇴색한 감이 없지않은, 이 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넘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 법에 찬성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취지를 수렴해볼 수 있을까하는 바람입니다.

유아교육의 의무화

특정한 교육단계가 의무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점을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 해당교육내용을 습득하게 되어, 그들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무교육의 긍정적인 효력은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정이념사회의 이념교육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런 교육을 받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의 의무화를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교육부의 의도는 시기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유아들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유아학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부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썼지만, 선택교육과는 달리, 의무교육의 효과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의 '교육의 획일화'운운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식의 획일화에 우리교육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획일화되지 않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래의 '유아학교'에 확실한 교육체계 및 교육환경이 우선 갖추어져야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말합니다. "우선 법부터 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츰 개선해 나간다"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유아학교 공교육화의 취지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경제자본주의의 모델을 추앙하는 우리 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공교육제도는 우리의 자부심의 하나라고도 하겠습니다. 특히 '공교육'이란 우리 나라 같이 교육열이 대단한 국민들을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교육체제이며, 그것이 무상교육과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반면, 공교육이란 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유아교육법제정을 외치는 우리정부의 좋은 의도 이면에 유아교육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공교육의 현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교육과정, 교사수급 및 자격, 승진, 교육행정, 재정 등등, 일차적, 부차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이 연관을 맺고 있으며, '교육정책'이란 이름으로 그 요인들은 단기적, 혹

은 장기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이리저리 휘둘러 일이, 중앙에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그 잣대로, 교육 평가치고 장부 정리할 일이, 심산계곡에 파묻혀 유아교육에 심혈을 다해보지만, 일악한 교육환경을, 박봉을 어떻게든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감당할 일이.....

영아와 유아교육이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맡길 보육 및 교육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영향과 교사 및 학교의 역할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많은 것을 습득하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교습시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학습연령은 나날이 조기화 되고 있습니다. 정서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교습소에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영아와 유아교육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혹시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배운 사람들일수록 영유아들의 보호 및 안전, 정서교육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 중 엄마든 아빠든 월급이 적은 쪽이 휴직이나 퇴직을 한다고도 하더군요. 물론 이 경우에는 휴직 및 퇴직여건이 우리와 달라,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의 현대화가 일방적으로 직장여성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양상이 다양해짐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그들의 욕구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한 측면만을 과대평가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의 영, 유아교육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있어 이중적인 비용이 들고, 관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회의 현대화에 힘입어, 다양해지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 혹은 사원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들은 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육정책이란

학파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 교육의 직간접적인 환경이 되는 가정, 사회, 학교를 비롯한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의 전달자인 교사와 교수방법, 마지막으로 교육의 내용이 되는 다양한 교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해당사회의 제도나 풍습에 따라 다양한 관계로 작용하는 것이 한 나라의 교육이며,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런 저런 자격으로 그 사회의 교육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체계의 위계질서가 확연하고,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우리사회는 정치나 정책의 힘은 과대평가 되는 반면, 한 개인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힘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은 교육정책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흔히 간주되며, 여기에 교육정책은 때론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빌려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것이 교육대상자와 전달자, 환경이 다른 우리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 및 재정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육정책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능을 과용한 일도 허다했습니다.

교육정책이란 이름으로 우리 교육부가 기하는 노력들이 자주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불신. 이는 정부를 비롯을 일이 아니라, 국민 된 입장으로 정말이지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라도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교육은 더욱 침체되고 악화 되어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위안을 해야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자녀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이 아닌,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육정책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교육정책은 교육 요소들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중심역할이 아닌, 교육발전의 장애를 해결하고, 다양한 교육욕구들을 수렴하고 충족시키는 보조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전달자, 교육환경을 담당하는 우리누구도 잊혀진 채 간과되

어서는 안되며, 대신 교육발전과 개선을 담당하는 주체자라는 역동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는 늘 있어왔습니다.

최고학력을 맹목적으로 숭앙한 세대, 맹목적으로 치열한 경쟁교육을 거친 세대, 오랜 세월을 교육에 투자하고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몰랐던 세대 등...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의 애석한 교육결과 이면에 우리가 가지게 된 자산은, 우리국민의 평균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등교육을 받은 10명중 4명 이상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대신, 격화된 감정으로 감정싸움을 하거나 기본취지를 망각하는 대신, 참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음을 인식합시다.

교육의 전체적인 피드백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길지 않은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 교사, 교육환경이 편중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때이며, '교육'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유아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그들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할 자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아교육, 나아가 교육의 이름으로 끌어올리는 돌덩이가 다시 무참히 굴러 내려도,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영원처럼 보여도,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이 수많은 질문으로 교육을 얘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올바르게 표명하고, 그 내용들이 교육주체자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수렴된다면, 소리 없이 '교육의 민주주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가 톱을 쥔 줄 모른다면, 그들에게 톱질을 가르치지 마라
네가 노래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네가 삶을 중요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마라."

Fernand Deligny

2001년 제5차 정기 총회 및 겨울수련회 안내

일 시 2001년 2월 3 오후 5시 ~ 2월 4일 오후 1시

장 소 건설기술교육원

참가비 수도권 회원 1만 5천원, 지방 회원 5천원

준비물 개인 세면 도구, 벼룩시장에 판매할 물건, 전시용 아이들 사진

일정표

	첫째날(2/3)	둘째날(2/4)
오전 8:00-9:00		기상, 식사
9:00-9:50		교양강좌 -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는 통일과 한국 사회
10:00-12:30		정기총회 폐회식
오후 5:30-6:00	접수	
6:00-6:50	저녁식사	
7:00-7:10	개회식	
7:10-7:40	보육교사회 조직전망 논의과정 경과보고	
7:40-9:40	나로부터 출발하는 보육교사회-조별 토의	
9:50-10:30	내가 느끼는 한국보육교사회 - 조별 토의 결과 발표	
10:40-12:00	공동체놀이	
12:00-	방별 자유시간 및 취침	

장소 오시는 방법

수도권 지역에서 오시는 방법 - 전철 1호선 (인천 방면) 송내역 하차 후 시내버스 16번 타고 교육원 앞 하차. 또는 동암역 하차 후 마을버스 5번 타고 교육원 앞 하차

지방에서 오시는 방법 - 영등포역에서 하차 후 전철 1호선 (인천 방면) 송내역 하차 후 시내버스 16번 타고 교육원 앞 하차. 또는 동암역 하차 후 마을버스 5번 타고 교육원 앞 하차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하세요

2001년 4월에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며 1년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 자격: 18세 이상 ~ 30세 미만의 본 회 정회원으로 2명 선착순입니다.

한국전통민속 다종이 인형전

- 민속 명절과 세시풍속

민족의 대 명절 '설'을 맞이 하여 음력 정월 부터 설날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우리 전통의 세시풍속 의례들을 다종이 인형을 통해 재현, 내외국 관광객에게 우리 고유의 풍습을 소개하여 볼거리와 함께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01년 1월 20일 ~ 3월 30일

장소: 지구촌 민속 박물관

문의처: 02-773-9590

[공연] 피블의 모험

귀가족인 피블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귀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고양이들이 침략으로 귀의세계는 폐허가 되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피블가족은 고양이들 피해 자유의 땅을 찾아갑니다. 가는 동안 피블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피블은 고양이 소굴에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 끌려온 또 다른 귀들과 함께 거인귀라는 계획을 세워 고양이들을 죽음의 땅으로 가는 배에 태웁니다.

고양이들을 물리친 피블은 상을 받고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하게 삽니다.

공연 시간: 2001년 2월 1일 ~ 28일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평일 11시, 2시

장소: 올림픽예술극장

문의: 02-420-0360

[공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한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 잊고사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화: 02-833-3100

장소: 뽀프리자 아트홀

이용요금

개인 단체

일반 16,000 원 12,500 원

할인 15,000 원

회원 13,500 원

공연일정: 2001년 2월 1일 - 2월 28일

(매주 월요일은 공연 없습니다.)

공연시간: 평일 - 11시, 2시 30분

토, 일, 공휴일 - 1시, 3시

제2회 교사를 위한 연극놀이 워크숍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는 좀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이론보다는 실습을 통해 연극놀이를 소개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급과정: 2001년 1월 29일 - 2월 2일 (4번 오후 2시 - 5시, 8번 오후 6시 - 9시)

대상: 연극적 배경이 없는 교사(초·중등 교사, 특수 교사, 유아교사) 및 일반인

장소: 노랑진 백수광부 연습실

수강료: 7만원

중앙소식

- 11월 2일 교육센터 가을강좌 - 전통놀이 감 만들기 교육을 부천에서 실시했습니다. 강사로는 서은희 부회장과 고정미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11월 2일 "서울시 교재교구전 심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11월 4-5일에 걸쳐 대구 한사랑어린이집에서 중간간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부의 일꾼들이 모여 조직에 대한 토론도 하고 정책 교육도 받고 이튿날은 팔달산을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 11월 8일 교육센터 가을 강좌로 '편해문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랑방 강좌'를 진행. 우리아이들의 옛노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 11월 9일 교육센터 가을강좌 - 전통놀이 감 만들기 교육을 안양에서 실시했습니다. 강사로는 서은희 부회장과 강영신 선생님, 이지운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11월 11일 -12일 교육연구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 11월 15일 본회와 공동육아연구원 공동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어 순천향대의 허선 교수의 발제-보육사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보육교사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의 주제 발표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향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전국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진귀수 회장, 한국보육교사회 황미혜 보육정책위원, 전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이만수 부회장,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김재홍 사무관, 공동육아연구원 박현숙 현장교육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16일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조인숙 선생님이 신임 연구소장이 되었으며 이후 연구소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11월 17-18일 양일간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11월 21, 22, 29일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평가"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11월 21일 보육정책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2001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11월 23일 여성단체연합 이사회에 이기원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11월 23일과 24일에는 보육교사종합취업 지원사업으로 '취업설명회'와 '창업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 11월 24일 대전에서 총준위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교육사업과 조직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 11월 25일 경기도지부 추진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년간의 경기도지부 평가와 이후 준비위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11월 30일 2001년도 보육사업지침 개정에 관한 우리 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12월 1일 선배회원들과 후배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나누는 '한 번 보자 카페'가 열렸습니다. 이 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2월 6일 복지연합신문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12월 11일자 복지연합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 12월 12일 미술소모임이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간에 진행되어 오던 미술소모임은 일단 종료 후 2001년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2월 19일 "서울시 보육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0년도 서울시의 보육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0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 구별로 1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장애통합보육시설로 시범 운영하는 등 특수보육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2월 20일 서울시가 주최한 "새천년 새서울 주요시정 보고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습니다. 본 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23일 총준위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특별 사업, 기타 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회의가 끝난 후 조출한 송년회도 있었습니다.

- 12월 26일 전통보육프로그램 개발 자문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주최 "보육발전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12월 28일 여연 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12월 29일 경기도지부 추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준비위로 전환하며 수원지 회장인 강영신 선생님이 준비위원장, 고영미 선생님이 조직부장, 박부자 선생님이 교육부장을 맡았으며 2001년 진행될 통일 교육 소모임은 김실이 선생님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지부 소식

인천지부

- 12월 16일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1년간의 지부 사업 평가와 계획을 세웠으며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인희 신임 지부장과 고정미 조직부장, 이연순 홍보부장님이 올 한해 인천지부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산지부

- 12월 3일 총회가 있었습니다. 신입지부장으로는 김명선 선생님이 선출되었으며 최정임 교육부장, 안미경 조직부장, 김지현 총무로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래지회장에는 김양희, 사상지회장은 김향진, 진구지회장에는 장정숙 선생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 드디어 부산지부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051-554-9668이고 메일 주소는 pdta2001@hanmail.net입니다. 우리 축하 전화해 주지요.
- 11월 5일 제2기 통일학교가 실시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7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지부

- 1월 20일에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11월 4~5일에 걸쳐 신심회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11월 18일에는 회원 야유회로 채석강에 다녀왔습니다.
- 12월 9일 조직전망관련 회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지부(준)

- 12월 29일 경기지부 추진위 회의가 있었으며 이 날을 시작으로 준비위로 조직을

개편 준비위원장에는 수원지회장인 강영신 선생님이, 조직 담당은 고영미 선생님, 교육 담당은 박부자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부에서는 올 해 통일교육 소모임(김실이 선생님이 담당합니다)을 만들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경기지부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축하합니다.

- 광주의 김영금, 박미영 선생님과 대구의 홍미숙 선생님이 한 날에 결혼 합니다. 물론 신랑은 다 다르구요. 2월 18일이랍니다. 그날이 좋은 날인가 봐요. 축하합니다. 같은 날 결혼 하니 서로서로 신혼살림 정보도 나누며 행복하게 사세요.
- 서울 다우리 어린이집의 이미옥 선생님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고 지금은 집에서 산후 조리 중입니다. 아이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사했습니다.

- 서울 어깨동무 어린이집이 근처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방도 넓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육하는 층이 같아 예전에 비해 선생님들이 일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군요.
- 서울 새터 어린이집의 차윤희 선생님이

방을 눌러 이사했습니다. 다음엔 집장만 해서 이사가세요.

- 본회 사무국에서 특별사업을 담당했던 구미진 선생님이 퇴직했습니다. 1년간의 사무국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에 취업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문 내용은 다음호에 소개하겠습니다.
- 전 사무국장 최순옥, 조직부장 박정애 선생님이 50일간의 인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승필이와 정윤이도 함께 갔는데 소식이 없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요? 설 쯤에는 얼굴이 까매져서 인도 여인이 된 두 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지부 - 북부지회> 12월 완납
- <서울지부 - 남부지회> 12월 일부
- <인천지부> 12월 완납
- <광주전남지부> 9월 완납
- <부산지부> 12월 완납
- <대구지부> 12월 완납
- <수원지회> 11월 완납
- <기타> 서미연 3만원, 박부자 5만원, 임남희 12만원, 남미영 5만원, 이정님 3만원
- <자료회원> 만리어린이집, 이창미, 안양보육정보센터,
-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윤경 7만원, 강영신 12만원, 이선주 5만원, 서은희 10만원, 이

상옥 5만원, 유정은 5만원

본회 국민은행 통장에 조미연, 이의선 이름으로 각각 3만원과 1만원 입금하신 분은 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11·12월 월행일지

11월 2일	교육센터 가을 강좌 - 부천
4-5일	중간간부 훈련
8일	교육센터 가을 강좌 - 편해문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랑방 강좌
9일	교육센터 가을 강좌 - 안양
11-12일	교육연구팀
13일	확대집행위
15일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16일	한국보육정보연구소와의 간담회
22일	확대집행위
23일	보육교사종합취업지원사업 · 취업설명회
24일	총회준비위 1차회의 보육교사종합취업지원사업 · 취업설명회
25일	경기지부 추진위 회의
12월 1일	한 번 보자 카페
	건강보육연대 1차 회의
9일	건강보육연대 2차 회의
	확대집행위
12일	미술소모임
15일	건강보육연대 3차 회의
22일	확대집행위
23일	총준위 2차 회의
27일	휴게이지자문회의
29일	건강보육연대 4차 회의 경기지부추진위 회의

편집부에서

2001년입니다. 올해는 보육계에 많은 일들이 예상됩니다. 지난 연말부터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건강보육연대도 만들어지고 또 정초부터 움직이는 복지부도 그렇고... 이왕이면 좀 더 나은, 발전하는 보육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매년 기획하면서는 이번에는 꼭 월초에 발행하리라 맘먹지만 늘 잘 안되네요. 게다가 이번 호는 더욱 늦어지고 말았네요. 우리네 아이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네요. 담부턴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를 집필해 주신 주혜민 선생님이 진주로 이사가면서 집필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호부터는 '영아들과의 하루'로 꼭지 이름이 바뀌어서 연재 됩니다. 집필은 광주의 도담도담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맡고 계신 이정미 선생님이 해 주십니다. 원고 청탁을 수락해 주신 이정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사 원안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 매월 1만원+@ (연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회 지부, 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회원이 되시면

-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외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방법

- ◆ 자료 회원은 중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정회원은 중앙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 → 지부, 지회로 연결 → 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른
송금구좌: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 천라안, 나우누리 KDTA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천라안 KDIRC